

2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676.19 (-101.49)	779.33 (-34.20)
금리 (연평균)	환율 (원/달러)
2.939 (-0.037)	1356.00 (-10.20)

metro® 경제

주담대
한달새 7.6조 늘어
올해 30조 증가
02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2024년 8월 5일 월요일

삼성·SK, AI 반도체 전쟁... 하반기 'HBM3E' 승부수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3분기 실적 핵심 생성형 AI 반도체 삼성, HBM3 생산능력 2배 확대 하이닉스도 3분기부터 양산 시작 품질검증 실패시 재고 손실 위험

1, 2분기 고대역폭 메모리 (HBM) 시장에서 앞치락뒤치락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반기 실적도 HBM이 주도할 전망이다. 그 중심엔 HBM5세대인 HBM3이 있다.

4일 (메트로경제) 취재 결과, 삼성전자가 지난 7월 31일 2분기 실적에서 매출 74조 683억원, 영업이익 10조 4439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반도체 부문에서 매출 28조 5600억원, 영업이익 6조 4500억원을 기록해 SK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 매출 16조 4233억원, 영업이익 5조 4685억원보다 영업이익에서 1조원 이상 앞섰다.

1분기에는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앞섰다. 당시 SK하이닉스는 매출 12조 4300억원, 영업이익 2조 8900억원을 기록했다. 삼성전자 DS 부문은 영업이익 1조 9100억원으로 다섯 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SK하이닉스에 미치지 못했다.

상반기 실적에서 주목할 점은 AI용 HBM3을 중심으로 한 매출 상승이다. SK하이닉스는 HBM과 eSSD 등 AI 메모리 수요 강세로 1분기 대비 매출이 32% 증가했다. HBM 매출이 전분기 대비 80% 이상, 전년 동기 대비 25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도 생성형 AI 수요 덕에 HBM 매출이 전분기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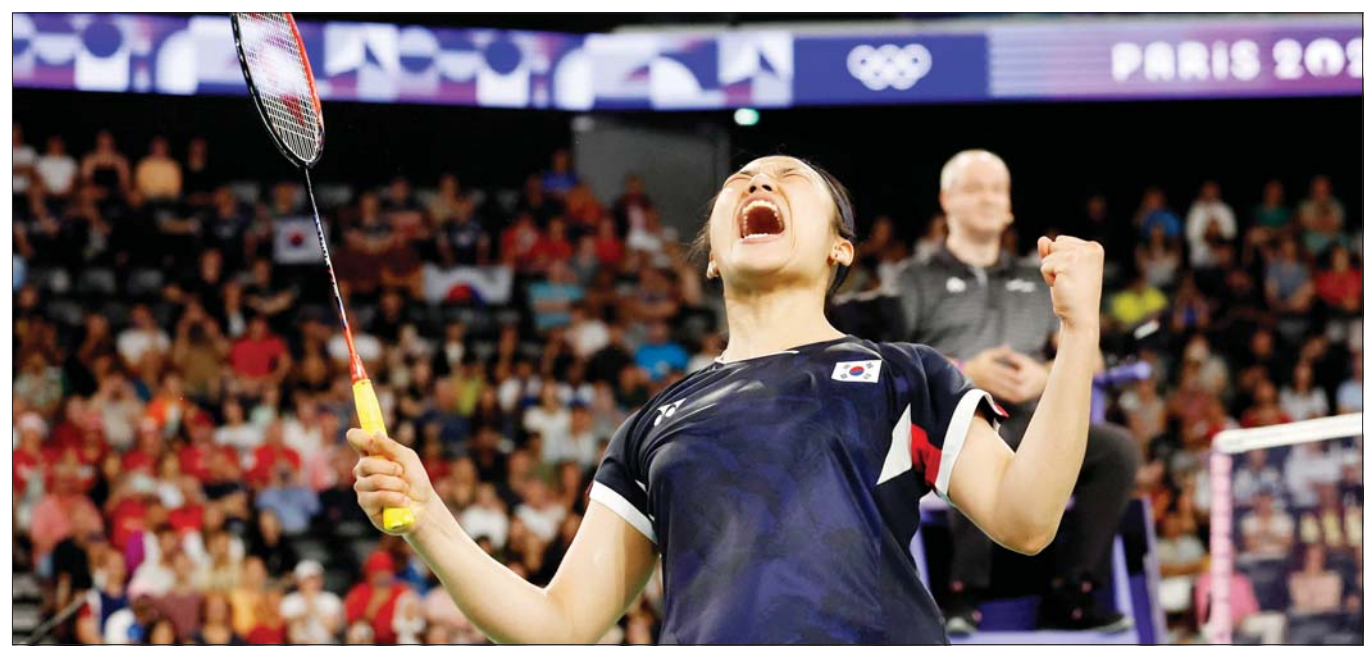
3분기 실적 핵심 키워드는 생성형 AI 반도체가 될 예정이다. 두 회사 모두 HBM3E를 양산하며 물량 확대를 예고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4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3의 물량을 4배 늘리며 생산능력을 2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블랙웰용 HBM3E 납품을 위한 품질검증을 진행 중이다. SK하이닉스도 3분기부터 HBM3E를 양산해 엔비디아에 납품할 예정이며, HBM4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도래와 AI 개발 붐으로 HBM 시장의 호조를 기대하면서도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두 회사의 HBM은 엔비디아 GPU 납품에 달려 있으며, 품질검증에 실패하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메리츠증권의 김선우 연구원은 "HBM 테스트는 다양한 조건에서 성능을 종합적으로 검사해야 한다"며 "테스트 탈락 후 재검사 신청과 완료에 수십 일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엔비디아 품질 인증을 받지 못한 HBM은 악성재고가 될 것"이라며 "HBM은 사전 협의 후 생산하기에 납품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재고 손실 위험이 크다"고 덧붙였다.

인텔의 어닝 쇼크는 AI 반도체 시장에서의 실패가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인텔은 3분기 매출 전망치가 125억~135억 달러로 예상되며, 이는 블룸버그 전망치인 144억 달러에 못 미치는 실적이다. AI 반도체 시장에서의 실패와 파운드리 사업 부진이 주된 원인으로, 2분기 영업손실은 19억 6400만 달러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AI 중심의 반도체 시장



안세영, 28년 만에 배드민턴 여자단식 결승

'서툼극 여왕' 안세영(22·삼성생명)이 2024 파리올림픽 금메달까지 단 1승만을 남겨뒀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포르트드라사펠 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배드민턴 여자 단식 준결승에서 그레고리아 마리스카 툰중(인도네시아·8위)을 2-1로 꺾었다. 한국 여자 단식 선수가 올림픽 4강을 넘어 결승까지 오른 건 1996 애틀랜타 대회 금메달리스트 방수현 이후 28년 만이다. 안세영이 결승 진출을 확정된 뒤 환호하고 있다. /뉴시스

재편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GPU 외에도 AI 반도체가 등장하고 있는 것도 변수다. 엔비디아의 GPU에 밀려 큰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인텔은 차세대 AI 가속기 '가우디3'을, AMD는 'MI300X'를 공개했다. 삼성과 SK는 HBM을 중심으로 매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며 AI 최적화 반도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AI 거품론에도 주의가 필요하다"며 "하반기 실적은 문제 없겠지만 내년 반도체 시장은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오가노이드사이언스, 9월 글로벌 네트워킹 행사 베트남 발판 아세안 보폭 확대 오가노EZ 등 첨단기술 알린다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선정된 바이오 전문기업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사업 보폭을 넓힌다. 베트남과 태국을 기반으로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을 공략해 동남아시아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오는 9월 30일 글로벌 바이오헬스 분야 산학연병 및 정부 관계자를 초대해 대규모 네트워킹 행사 '아시아를 향해: 글로벌 바이오헬스의 새로운 시대(Moving Toward Asia: A New Era in Global BioHealth)'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국내는 물론,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바이오헬스 분야 관계자 40여 명이 함께한다. 지난해 11월 오가노이드사이언스 개최한 '한국-베트남네트워킹 행사'가 올해는 아시아 국가 전역으로 확장된 것이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신약 평가 플랫폼 '오디세이(ODISEI)'와 오가노이드 기반 재생치료제 플랫폼 '아톰(ATOM)'을 주축으로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베트남은 오가노이드 신약 평가 플랫폼의 생산 거점이자 전진 기지로 활용되고 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지난해 8월 베트남 호치민에 현지법인 'VOS(베트

남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디스커버리'를 열고 새로운 플랫폼 '오가노EZ'의 판매를 시작했다. 오가노EZ는 연구자가 편리하게 오가노이드를 배양할 수 있도록 돕는 올인원 솔루션이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지난해 '베트남의 삼성'으로 불리는 빈(Vin)그룹 산하 빈멕(VINMEC) 인터내셔널 병원과 베트남 국립 협회-국제 대학교, 베트남 과학기술대학교(VAST), 호치민 바이오테크놀로지 센터(BC HCMC) 등과 협업을 맺고 오가노이드는 물론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 다양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태국은 오가노이드 기반 재생치료제의 아시아 허브로 활용된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지난 6월에는 태국 주요 의과 대학인 마히돌 의과대학과 시리라지, 라마티바디 병원, 태국에서 가장 큰 민간 의료 그룹인 방콕 두시 메디컬 서비스(BDMS) 등과 협약을 맺었다.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는 "태국과는 다양한 기술교류는 물론, 임상과 연구개발, 치료제 상업화 부분까지 광범위하게 협력할 예정"이라며 "장 재생치료제, 아톰-C 등 오가노이드 기반 재생치료제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2면에 계속) /이세경 기자 seilee@

엔화 상승세 뚜렷... '엔 캐리 청산' 우려

日 기준금리 인상에 엔화 가치 ▲ 美 연준 '빅스텝' 관측도 부채질

지난 7월 초 100엔당 850원대에 머무르던 원·엔 환율이 빠르게 반등해 930원을 목전에 뒀다.

일본은행(BOJ)이 시장의 예측을 뒤엎고 4개월 만에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엔화 가치가 빠르게 상승 중이다. 우리 주식시장에서 엔화발(發) 자금이 대규모로 이탈하는 '엔 캐리 청산'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4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 2일 원·엔 환율은 전일보다 9.22원(1.01%) 오른 919.93원에 오후 거래(오

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원·엔 환율은 야간 거래(오전 2시 종가)에서도 상승을 이어가며 100엔당 929.22원에 거래를 마쳐 930원을 목전에 뒀다.

지난 7월 초 100엔당 850원대에 머물렀던 원·엔 환율이 한 달 만에 80원 가까이 상승한 것.

또한 같은 기간 36년 6개월 만의 최저치인 달러당 162엔 수준까지 올랐던 (엔화 가치 하락) 달러·엔 환율도 지난 2일(현지시간) 146.60엔까지 내려(엔화 가치 상승), 엔화 강세가 뚜렷한 모습이다.

일본은행이 지난달 말 개최된 금융 정책회의에서 시장의 예측보다 앞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엔화 가치가 빠르게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앞서 시장에서 일본은행이 7월에는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일본은행은 지난달 31일 금융정책회의 직후 기준 연 0~0.1%인 기준금리를 연 0.25%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08년 12월 기록한 연 0.3% 이후 1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본은행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열어뒀다.

(2면에 계속)

/안승진 기자 asj1231@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한동훈 "尹 만남 먼저 제안... 가십이 중심되기에 할 일 많아" /사진 뉴시스
▲ 與, 野 지원금 법 강행 겨냥 "전 정권 때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 폭주"

▲ 이재명·조국, 친분 과시 "10년간 시련? 고통 같이 이겨내... 이간질 소용없어"
▲ 배준영 "거부권 중독은 대통령에게 그릇된 이미지를 씌우려는 유치한 전략"



▲ 박찬대 "尹 방송 장악, 5·18 폭동 묘사 시절로 돌아가자는 것" /사진 뉴시스
▲ 김정은, 북한 수해 피해 보도 겨냥 "변할 수 없는 적이 날조된 여론 전파"

주담대 한 달 새 7.6조 늘어 올 30조 ↑... 막차수요 더 늘듯

5대은행 주담대 잔액 559.7조
부동산 경기 회복에 매매 활발
9월 DSR 도입 앞두고 영끌 ↑

주택정책금융 금리 개선 추진
이르면 이달 중순 종합대책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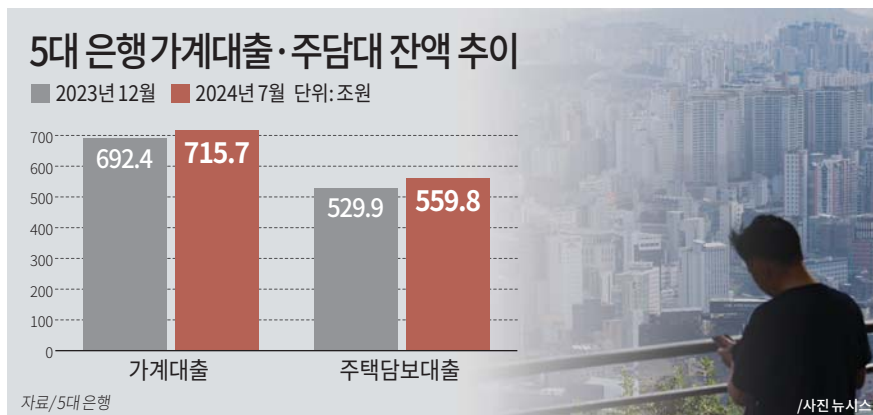
부동산 경기 회복으로 주택 매매가 늘어나며 주택담보대출이 한달 새 7조 6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들어 30조원 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9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을 앞두고 대출 막차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잔액은 559조7501억원으로 한달 전(552조1526억원)보다 7조5975억원 증가했다. 이는 월별 통계가 집계된 2014년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 부동산 거래 늘자, 주담대도 '쑹'

주담대가 증가한 이유는 부동산 경기 회복으로 매매가 늘어난 영향이 가장 크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아파트 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6월 전국 거래 건수는 총 4만3300건으로 지난해 말(2만6934



건)과 비교해 60.8% 증가했다. 아파트 거래는 올해 3월부터 4만건을 넘어섰다. 2개월 이상 4만건 이상을 유지한 경우는 부동산 값이 가장 많이 오른던 2021년 이후 처음이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앞으로 한달 간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앞서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을 당초 7월에서 9월로 늦췄다. 스트레스 DSR 도입 전 한달 간 막차수요가 늘며 주담대가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스트레스 DSR은 과도한 가계대출 확대를 막기 위해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5년중 최고금리와 현재 금리

의 차이를 대출자에게 가산금리로 부과 한도가 감소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회복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주담대 규제 강화를 앞두고 막차수요도 작용하고 있다"며 "금리를 인상하고 있지만 주담대 규제 이후 한도가 축소되는 것보다는 인상된 금리로 우선 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구매할 기회가 된다면 우선 대출을 받으려는 고객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 정책금융 금리 개선...가격 잡는다

정부는 주담대 증가세를 막기 위해 주택정책금융(신생아특례대출·디딤돌·버팀목등)의 금리산정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스트레스 DSR 2단계를 9월부터 예정대로 시행하고, 최근 빠른 증가세를 보인 주택 정책 금융은 실수요자에게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리 산정 체계 등으로 효과가 나타날 상황이었다면 은행의 금리인상만으로도 대출이 감소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집값이 상승할 거란 기대감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을 이겨내고 있다"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앞으로 대출은 더욱 활발히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조만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최근 서울 강남3구와 마곡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의 매매와 전세가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며 "정부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봐 현재 관계부처 간 대책을 논의하고 있고, 이달 늦지 않은 시점(8월 15일 이전)에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1면 '엔화 상승세 뚜렷...'서 계속

엔화 영향력 축소로 국내증권 타격 미미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지난달 31일 금융정책회의 직후 인터뷰에서 "경제 물가가 우리의 예상대로 움직인다면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해 나갈 생각"이라며 "0.5%를 벽으로 보는지 묻는다면, 특별히 의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는 9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단번에 0.5%포인트(p)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빅스텝'을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엔화 가치 상승을 부추겼다.

지난 2일(현지시간) 미 노동부는 지난 7월 미국 비농업 부문 고용이 11만 4000명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전망치인 18만5000명을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같은 기간 실업률도 전월보다 0.2%p 오른 4.3%를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마일 금리차가 당초 예측보다 빠르게 축소될 것이라 전망과 함께 '엔 캐리 청산'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엔 캐리'는 금리가 낮은 일본 시장에서 자금을 빌려 다른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 방법이다. 일본 내 금리가 상승하면 '엔 캐리'의 수요가 약해지고, 자금이 이탈해 주가가 하락하는 '엔 캐리 청산'이 발생한다.

교보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대규모의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발생했던 지난 2002년, 2008년, 2016년, 2020년에 코스피는 각각 -15.9%, -50.3%, -10.6%, -35.7%의 하락을 기록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엔화의 영향력이 과거보다 축소됐고, 국내에 체류 중인 엔 캐리 자금 규모도 크지 않아 국내 증권 시장에 '엔 캐리 청산'의 여파가 미칠 가능성은 작다고 내다봤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본으로 환류 가능한 국내 엔 캐리 자금 규모는 총 38조7000억엔으로, 이는 코스피 시가총액의 0.6%에 불과하다.

이복천 금감원장도 "국내에 유입된(엔 캐리) 금액은 많지 않으나 위기 상황에서 엔 캐리 청산이 발생하면 시장 변동성을 증폭시킬 수 있으므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i1231@

>> 1면 '오가노이드사이언스...'서 계속

싱가포르·인니 등 아세안 교류 기대

다음 달 '한국-아세안 네트워크 행사'가 이어지면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등과 다른 국가들과의 교류를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회사측 관계자는 "올해는 베트남은 물론 동남아시아로 지역을 확대했다"며 "더 다양한 국가와 더 많은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최근 연내 상장 목표로 초격차 특례 1호 예비심사를 신청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줄어드는 숙박업계 용자 지원금... 재원마련 논의 필요

관광업계 용자지원 규모 절반 감소
출국납부금 인화로 더 줄어들 듯

호텔을 포함한 숙박업계에 제공되는 정부의 용자 지원 금액이 줄고 있는 추세다.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따른 관광업계 용자 지원 금액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시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용자 지원 지침에 따르면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를 합산한 용자 지원 총규모는 2019년 1조 1500억원에서 2023년엔 4465억원으로 꾸준히 감소해 왔다.

특히 하반기 기준 용자 지원 규모는 2022년, 2023년 2000억원대를 유지하

다가 2024년 하반기에는 1000억원대로 줄어들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용자 지원 사업은 정부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관광 관련 기업과 단체에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제도다. 용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는 호텔, 리조트, 펜션업 등 숙박업체가 포함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하반기 지원 금액이 줄어든 것은 상반기에 선제적으로 기금액을 많이 배당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현상"이라고 답했다. 이어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매년 재정 상태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용자 규모 금액이 다르다"며 "오히려 2024년에는 상반기와 하반기를 통틀어 전체 용자 지원금이 작년 대비 올랐다"고 전했다.

그러나 업계는 올 한 해 용자 지원 금액이 오른 것을 일시적인 상황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호텔업계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의 70%를 차지했던 출국납부금이 올해 7월부터 인하됨에 따라 앞으로 지원 가능한 용자 규모액은 더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호텔협회의 정오섭 사무국장은 "관광진흥개발기금 같은 경우 주요 재원이 출국납부금인데, 최근 출국납부금이 1만원에서 7000원으로 감면됐다"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3000원 감세지만 3000원에 3000만명만 곱해도 1000억원가량이 되는 것이다. 이 상황을 미루어보면 앞으로 기금 규모 자체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정 사무국장은 "업계에서는 기금 규모가 감소할 게 예상되니까 기금이 아

닌 일반 예산에서 지원받을 방법을 찾고 있다"며 "작년 하반기, 올 연초부터 계속 대책 요청을 해왔다"고 전했다.

상황이 어렵다보니 관광개발기금 용자 지원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펜션업에 종사하고 있는 관계자는 "젊은 학생들이 많이 찾는 곳은 장사가 잘 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장사가 어렵다"며 "대출받아서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업종을 바꾸거나 폐업 신청하거나 아니면 물류 창고 같은 곳으로 업종을 변경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금리가 1%든, 2%든 어쨌든 손님이 와야 대출을 받고 영업할 텐데 애초에 찾아오는 손님이 많지 않은 곳들은 대출을 받아도 소용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재선 기자 wotjs4187@

韓 총인구 50만명 줄때, 65세이상 女 110만명 늘었다

한국인 열에 한 명은 여성 노인
65세 이상 여성 가파른 증가세

한국인 열에 하나는 여성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총인구가 50만 명 이상 줄어든 반면 65세이상 여자 인구는 100만명 넘게 늘어났다. 15년 전인 2009년과 비교하면 250만 명 가까이 증가했다.

4일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달 말 기준 국내 만 65세 이상 여자 노

주인 수는 558만 명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인구(5126만명)의 10.8%를 차지하는 수치다.

여성 노인의 비중은 지난 15년간 지속적으로 커졌다. 2009년 7월에는 6.2%에 불과했다. 이후 2014년 7월 7.2%, 2019년 7월 8.6% 등으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여 왔다. 최근 5년간만 살펴보면, 총인구는 2019년 7월 5184만명에서 2024년 7월 5126만명으로 58만 명 감소했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여자 노

인 수는 110만명이나 증가했다.

성별·연령대별 인구 증감 추이에서 65세이상 여성은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했다. 15년 전 309만명, 10년 전 373만명, 5년 전 448만명, 올해 558만명 등이다. 지역별로, 경기도 지난 7월 말 기준 121만명, 서울에 99만명, 부산에 43만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전국 17개 주요 시·도 중 인구가 가장 적은 세종에도 여성 노인 수가 2만 4000명이나 됐다. 특히, 전남과 경북의

경우 65세이상 여성이 각각 15.2%(179만 중 27만), 14.2%(254만 중 36만)를 차지했다. 거주민 7명 가운데 1명에 해당한다.

행안부 집계는 대한민국 여성의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달 말 기준 70대 여자(220만명)가 10대 여자(224만명) 인구에 거의 다 따라붙었다. 10세미만 여아들(156만명)에 비해서는 64만명 더 많다. 이제 10세미만 여아 수는 80대 여자(131만명)와의 비교대상이 됐다. 연령대별 인구순위에서 10세미만이 8위, 80대가 9위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LS증권 시대 이끈 ‘소통하는 형님’… 톱10 증권사 꿈꾸다

CEO 리서치 김원규 LS증권 대표

“고객 성공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며 최고의 금융투자회사로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낼 것입니다”
 김원규 LS증권 대표이사는 지난 2019년 취임 후 과감한 사업 다각화와 직원들과의 소통 리더십으로 회사를 탄탄한 중형사 반열에 올렸다. 그는 올해 LS그룹사로의 전환을 계기로 다시한번 ‘퀀텀점프’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브랜드 가치 제고, 시스템 역량 강화, 신사업 진출 등을 적극 추진하며 업계 ‘만형’으로서의 진가를 보여줄 것이라고 공언한다.

◆ 35세 최연소 지점장… 검증된 증권맨

LS증권은 1999년 대한민국 최초 온라인증권사인 이트레이드증권으로 출발했다. 2015년 이베스트투자증권으로 사명을 변경한 후 올 초 LS네트웍스가 대주주로 들어오면서 지난 6월 LS증권으로 재출범했다.

김원규 대표는 NH투자증권 전신인 LG투자증권에서 시작해 35세에 최연소 지점장이 되며 일찍부터 두각을 보였다. 이후 금융상품영업팀장, 강남지역 본부장, 퇴직연금그룹장, WM사업부 대표 등 영업부문 요직을 두루 거쳤다.

김 대표는 LG투자증권이 우리투자증권으로 합병된 뒤 2013년 대표이사에 선임됐으며, 이후 NH투자증권과 합병되면서 초대 대표이사를 맡아 승승장구했다. 2019년부터는 이베스트투자증권을 맡은 후 현재까지 회사를 이끌어오며 여의도 증권가의 최고 베테랑 대표가 됐다. 업계에서 김 대표는 직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형님 리더십으로 경영 안정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대표로 선임된 첫해인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면서 이베스트투자증권은 빠르게 성장했다. 김 대표가 취임하기 전인 2018년 473억 원에 불과했던 영업이익은 2019년 731억원, 2020년 1542억원, 2021년 2254억원으로 높은 성장을 기록했다.

특히 김 대표는 회사가 부족했던 기업금융(IB)부문 강화에 주력하며 성장

을 일궜다. IB 부문의 본부를 6개로 늘리며 조직을 확대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1세대 전문가인 봉원석 부사장을 IB사업부 사장으로 선임하는 등 전문 인력 영입으로 경쟁력 확보에 집중했다. 그동안 브로커리지, 자기매매(PI) 등에 치우쳤던 수익구조를 IB부문을 키워내면서 다변화하는 데 성공했다.

력기증권 출신 정통 증권맨 이베스트투자증권 대표 취임 LS증권 사명변경… 성장 주도

IB부문 수익은 2018년 218억원에서 2019년 517억원, 2020년 679억원으로 급증했으며, 2021년에 1245억원을 기록했다.

또한 김 대표는 취임 20여 일 만에 9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을 추진한 데 이어 2020년 1200억원 규모의 제3배정 전환우선주 증자를, 2021년에 600억원 규모의 제3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단행하며 몸집을 불렸다.

이에 따라 회사 자기자본 규모를 2018년 말 4037억원에서 올해 1분기 말 8709억원으로 끌어올리며 중형 종합 증권사로 외형을 갖췄다.

◆ 사업 다각화·경영 안정화 주도… ‘톱 10’ 증권사 비전

김원규 대표는 사명 변경과 함께 ‘톱 10’ 증권사로 도약하겠다는 야심찬 계



김원규 LS증권 대표이사

/LS증권

획을 밝혔다. 하지만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김대표의 앞에 놓인 과제가 너무나 많다. 현재 LS증권의 자본력은 국내 증권사 중 21위에 머물러 있다. 목표하는 톱 10 증권사가 될려면 연내 2조원 이상의 자본을 늘려야 한다. 또한 부동산 PF 부실로 인해 직면한 실적 악화를 극복해야 한다.

이에 김 대표는 IB 부문 강화로 수익성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LS증권으로 사명 변경 전 기존 부동산투자본부를 ‘종합금융본부’로 바꾸고 업무 책임자로 하나증권 출신의 유병수 상무보를 선임한 데 이어 지난 6월 사명 변경 후에도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주식발행시장(ECM), 채권발행시장(DCM) 등 전통 IB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IB사업부 내부에 있던 기업금융본부를 독립시킨 뒤 최고경영자(대표) 직할로 소속을 변경하고 기업금융본부장을 전무급으로 격상했다.

그외 글로벌영업본부는 글로벌 비즈

니스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 ‘글로벌비즈본부’로 변경했다. 기관영업본부의 파생영업팀은 업무 확장성을 표현하고 대외 이미지 제고하는 차원에서 ‘패시브솔루션팀’으로 바꿨다.

IB·부동산·글로벌 역량 강화 토큰증권 등 신사업 적극 추진 “고객 성공 위해 끊임없이 도전”

LS증권이 9년 만에 범LG(家)로 돌아간 만큼 김 대표는 무엇보다도 LS그룹과 시너지를 주도해야 LS증권의 고속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 LS그룹의 성장이나딜을 주관한다면 LS증권의 빠른 성장 또한 기대할 수 있다. 이미 회사는 LS그룹 계열사 자금 조달에 꾸준히 참여해 실적을 내고 있다. LS 자회사인 LS일렉트릭 주식 29만9000주를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를 통해 주당 21만2500원에 매입하는 635억원대의

위탁투자증개를 맡았다.

LS일렉트릭이 지난해 10월 발행한 15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에도 인수단으로 참여했으며, 지난해 12월 LS머트리얼즈의 기업공개(IPO) 당시 인수단으로 참여해 48억원의 주관 실적을 쌓았다.

LS증권은 퇴직연금 사업 진출도 준비 중이다. 퇴직연금 사업 영위 시 LS그룹 계열사를 통해 수월하게 적립금 규모도 키울 수 있다. 김 대표가 우리투자증권 재직 당시 퇴직연금그룹장, 연금신탁영업담당 등을 지낸 전문가인 만큼 퇴직연금 사업을 직접 진두지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토큰증권(STO) 등 신사업에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STO 신사업 팀을 구성하고 꾸준히 토큰증권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부터 솔브릭코리아, 크로스체크 등과 토큰증권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은 데 이어 올해 나이스피앤아이, 스타키퍼와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올해는 설립 25주년이자 LS증권 원년으로 업계 최고 수준의 수익성, 최적의 리스크 관리를 이어가며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에 더욱 힘을 예정이다.

/원래희 기자 wkh@metroseoul.co.kr

·김원규 LS증권 대표 주요약력

- 1960년 5월 17일 경북 의성 출생
- 1979년 대구상업고등학교 졸업
- 1985년 경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1985년 LG증권 입사
- 1996년 LG증권 포항지점 지점장
- 2005년 우리투자증권 상무보
- 2010년 우리투자증권 전무
- 2013년 우리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
- 2015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
- 2016년 금융투자협회 비상근부회장
- 2019년~현재 LS증권 대표이사

전 세계 경기침체 공포… 韓 증시, 4년만에 최대 낙폭

2일 증가 기준 코스피 101p 하락 금 등 안전자산 위주 수요 이동

미국에서 불거진 경기 침체 우려로 한국 증시는 4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이른바 ‘검은 금요일’을 겪으며 안전자산 위주로 투자 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 ‘R(Recession·경기 침체)의 공포’를 극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4일 미국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1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장중 트로이온스당 2522.50달러까지 치솟는 모습을 보여주더니 2469.80달러에 마감했다.

금값의 상승은 경제 침체나 경기 둔화 징후가 보일 때 나타나는데, 올해 들어서 20% 가까이 올랐다. 지난달 12일 이후 2400달러대에 머물렀지만,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에 대



지난 2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2777.68)보다 101.49포인트(3.65%) 내린 2676.19에 장을 마감했다. /뉴시스

한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0.05%포인트 하락한 3.976%로 마감했다. 3%대에 진입한 것은 올해 2월 초 이후 처음이다. 채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채권 가격이 오르고, 금리(수익률)는 떨어지는 구조이기에, 채권 금리가 내린 만큼 채권 가격이 올랐

다는 뜻이다.

권병재 한화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미국 국채 금리는 10년물 기준 7월 한 달 동안 27bp 하락했지만 회사채 스프레드는 보합됐다”며 미국 회사채 비중 축소하고 미국 국채 비중을 확대할 것을 추천했다.

이처럼 안전자산으로 쏠림 현상이 강

해지는 이유는 미국에서 불거진 ‘경기 침체 공포’가 한국 증시까지 영향을 미친 탓이다.

전날인 1일(현지시간) 미국 공급관리협회(ISM)가 발표한 7월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6.8로 시장 예상치인 48.8보다 낮았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7월 4주차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4만9000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8월 1주차(25만8000건) 이후 최대치다.

이에 뉴욕 증시의 3대 지수는 이틀 연속 나란히 급락했다. 2일(현지시간)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1.51%, S&P500은 1.84%, 나스닥지수는 2.43% 각각 내렸다. 한국 증시도 한국 증시에서 52주 최저가를 찍은 신저가 종목은 코스피 80곳, 코스닥 264곳 등 총 344곳으로 집계됐다. 전 거래일 대비 상승세를 보인 종목은 단 146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

고, 35곳이 포함에 거래를 마쳤다. 결국 2일 증가 기준 코스피는 101.49(3.65%) 떨어져 지난 2020년 6월15일(101.48) 이후 4년2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코스닥도 34.20포인트(4.20%) 내린 779.32에 마감했다.

시장에서는 이번주는 ‘R의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느냐를 관건으로 꼽고 있다. 5일 미국 공급관리협회(ISM)가 발표하는 7월 비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와 남아있는 빅테크 실적들이 안전자산으로 몰린 수요를 다시 증시로 끌어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증권업계는 PMI가 부진할 시 경기 위축 우려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과월 의장의 기자회견 이후 9월 금리인하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지만 주가는 빅테크 기업의 실적 및 가이던스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향후 기업의 투자 규모나 실적 관련 매크로 지표 등 실적 요인에 크게 반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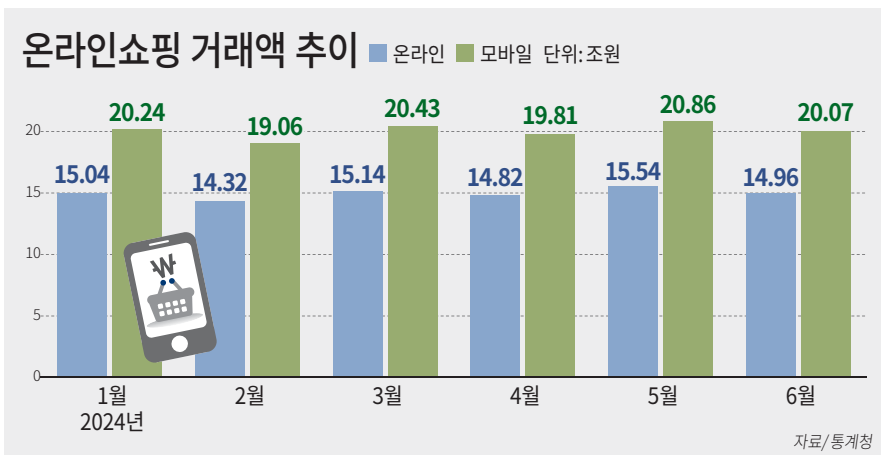
‘티메프 사태’... 온플법 등 판매자·소비자 보호제도 강화 촉구

〈온라인플랫폼법〉

소상공인, PG업 감독강화 등 요청 야당 주도 ‘온플법’ 제정도 탄력 정부, 제도개선 방향 마련 곧 발표 교원·시몬스 등 기업 피해 불가피

큐텐그룹이 촉발시킨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플랫폼에서 물건을 파는 기업과 고객에 대한 보호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업계에선 이참에 에스 크로(escrow)계좌 시스템 의무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Payment Gateway·PG)업 규제 감독 강화, 외국계 유한책임회사 외감법 대상 확대 등의 제도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태로 이들 플랫폼에 물건을 판 소상공인, 소기업들도 큰 피해를 입고 일부는 돈줄이 막혀 폐업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가 갈광질판하고 있는 사이 야당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티메프 사태로 고객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 기업들도 사태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 경우 제대로 정산을 받지 못해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티메프 사태로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에 공정위에 온라인 플랫폼 관련 금융 규제 개선 방안을 강력하게 요구할 방침이다. 소공연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은 “티메프 사태는 에스 크로 시스템 부재

및 미흡한 운영, 판매자에 대한 긴 정산 주기와 불투명한 판매대금 보관 방식, 관리감독기관의 규제 감독 사각지대 등의 이유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일”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티메프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부동산 거래시 거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에스크로 제도는 제품 소비자들이 상품·서비스를 받기 전 돈을 먼저 내야 하는 위험을 줄여준다. 또 구매자가 물건을 받고도 돈을 지불하지 않는 사기를 막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판매자들에게도 좋다.

공정위도 에스 크로 제도를 전면 도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모양새다.

티몬, 위메프와 같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인 동시에 전자금융거래법상 PG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다. 그런데 PG업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금융기관과 달리 금융감독원에 등록만 하면 된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의 경영개선 권고나 명령 등 법적 조치가 제대로 먹혀들어가지 못한다.

차 본부장은 “PG업을 영위하는 회사들도 금융업을 영위하는 범위내에서 자기자본비율 등 재무안정성 비율 충족을 의무화해야한다”면서 “아울러 대규모 선불충전금이나 선결제쿠폰 등을 판매하는 소셜커머수도 예금자보호법 등에서 지급보증 가능성이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 들어서도 더불어민주당 오기형·민형배·김남근·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 4건이 소관위원회에 접수된 상태다.

여기에는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마련 ▲사업자 사이의 분쟁조정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공정위의 위반행위 조사 및 처리, 서면실태조사 등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이 두루 포함돼 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의 원인이 ‘판매대금 돌려막기’라는데 주목하고 ‘온플법’에 이커머스 회사의 회계에서 운영자금과 판매대금을 분리하는 내용을 추가로 담는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약관 신고제를 도입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런 가운데 티메프 사태로 여행이나 제품 구입을 위해 결제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위해 선제적으로 지원에 나선 기업들도 자칫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원투어(여행이지)를 계열사로 둔 교원그룹도 그중 하나. 교원그룹은 앞서 티몬과 위메프에서 자사의 여행상품(7월29일 출발 이후)을 결제한 고객 중 교원투어를 통해 재계약하는 고객들 대상으로 기존 계약과 같은 금액·조건으로 여행을 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결제도 재계약시 50%, 여행 후 30일 이내에 잔금을 치를 수 있도록 해 고객 부담도 덜었다.

교원이 이번에 밝힌 보상 지원 대상은 9000여 명, 금액으로는 80억원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티몬 등이 고객 유치를 위해 10%~15% 가량 할인 판매한 조건을 교원이 재계약 고객들에게 그대로 보전해주고, 향후 환불이 여의치 않을 경우 포인트로 지급기로 약속한 터라 이는 회사가 자칫 손실로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시몬스도 앞서 티몬을 통해 자사의 침대 구입을 위해 결제한 고객들에게 신뢰 차원에서 침대를 모두 배송키로 결정했다. 금액만 약 4억원 어치에 달한다. 시몬스는 티몬의 대금결제 막히면서 현재 약 14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지난달 31일 기준)는 2745억원으로 집계됐다.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6~7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미정산 규모는 3배 이상 많은 1조원이 넘어설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가장 한국적인 도시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기억할 경주가 됩니다

우리가 함께한 경주 세계로 향하는 경주

역대 가장 완벽한 APEC 경상북도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피해자 환불 속속 완료... 결제 수단별 ‘희비’

카카오·네이버페이 등 중심 환불 PG사 등 결제 여행상품은 지연

“드디어 카카오페이 머니로 결제한 속소가 환불처리됐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의 피해자들이 속속 환불을 받고 있다. 다만 히토스페이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로 결제한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환불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신용카드나 PG사 등을 통해 결제한 여행관련 소비자들은 아직 환불 시작조차 못하고 있어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는 크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토스페이와 네이버페이 등 페이사를 통해 상품을 구매한 피해자들의 환불이 이뤄지고 있다. 현재 티메프 피해자들의 오픈채팅을 통해 환불 사례들이 속속 올라오

고 있다.

환불이 완료된 대부분의 사례 모두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네이버페이 등 페이를 통해 결제한 경우였다. 일반상품뿐 아니라 숙박, 항공권 등 여행상품을 예약한 사람들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PG사들도 지난 1일 상품권과 여행상품을 제외한 일반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아 결제 취소 및 환불을 시작하겠다고 알렸다.

일반상품은 최근 티몬과 위메프가 물품 배송정보를 PG사 등에 전달하면서 처리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 상품을 전달받지 못했다는 게 확실하기 때문.

다만, 신용카드나 PG사를 통해 결제한 여행상품은 여전히 환불 받지 못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

KB금융그룹



세상을 바꾸는 금융

안녕하세요, 배우 이영애입니다 제가 왜 KB GOLD & WISE *the* FIRST를 선택했는지 아시나요?

자산관리, 늘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2년 전, *the FIRST*를 만나고 마침내 해답을 찾았습니다

KB 최고의 금융전문가들이 팀을 이뤄
제 자산을 위한 가장 좋은 플랜을 제시해 주고
저와 가족의 라이프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었죠

덕분에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자산관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2년간 경험하고 신뢰하는 만큼
저 이영애는 여러분들께도
KB GOLD & WISE *the FIRST*를 추천합니다

KB GOLD & WISE *the FIRST* 고객

이영애

◆KB의 프리미엄 자산관리 *the FIRST*는 압구정과 반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KB GOLD & WISE *the* FIRST 특별한 자산관리 서비스

세무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등
각종 세무 관련 컨설팅

투자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및
투자 성과관리

부동산

보유 부동산 가치 분석 및
매각 타이밍 컨설팅

신탁

유언대용신탁, 가업승계,
증여신탁, 사후관리

금융자문

인수합병, 금융투자 자문,
가업 자문, 기업체 자문

법률자문

자산관리 업무 전반
법률 서비스 지원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상품, 서비스 가입 전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KB국민은행 고객센터 : 1588-9999, KB국민은행 홈페이지 : www.kbstar.com
•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2084호(2024.04.26.), 유효기간 2024.04.26.~2024.12.31.까지

민주당 당심 “尹 정부에 대항할 수 있는 차기 지도부 원해”

프로

野 전대 지역 경선 순회현장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 野 당원들 파란 옷차림으로 모여
 李 독주, 尹 견제 원하는 당심 반영
 최고위원 선거 치열한 경쟁 대해선
 적합한 李 파트너, 능력 평준화 분석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은 4일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민주당의 상징 색인 파란색 옷차림을 하고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일부 당원들은 각자가 지지하는 후보들의 기호와 이름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응원전을 펼쳤다. 사진은 이재명 당 대표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들이 피켓을 들고 응원을 하고 있는 모습.

“저에겐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다른 후보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에게 패배한 것이 길거리로 나온 계기가 됐다. 국제적으로도 국내외적으로도 경제, 민생 모든 것이 풀이 아니다. 그래서 차기 민주당 지도부에 바라는 건 전투적인 민주당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4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지역 경선 순회 현장에 있었던 윤 모씨(50대·여성)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당원들은 이날 오전 민주당의 상징 색인 파란색 옷차림을 하고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을 기다리고 있었

다. 일부 당원들은 각자 지지하는 후보들의 기호와 이름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응원전을 펼쳤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당원들 대다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항할 수 있는 차기 민주당 지도부를 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 후보를 지지하는 이 모씨(20대·남성)는 “정당이라는 건 권력을 얻고 선거에 승리해서 당의 비전을 이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와 대선이라는 빅 이벤트가 핵심”이라며 “민심의

힘을 얻어야 하고 당원들이 투표하는 전 당대회와는 달리 전 국민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윤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는 지도부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가 경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당원들은 윤 정부에 대한 민주당의 견제를 원하는 당심이 반영된 것이라고 봤다.

이 모씨는 “윤 정권을 견제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좋지만, 단일 대

으로 투쟁하고 맞서는 것이 더 효과적인 전략일 것이라고 판단한 당원들이 도와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모씨(50대·남성)도 “일부에서는 민주당에 강성 당원들만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250만 명이나 되는 당원이 있다는 것은 일반 국민과 거의 닮아 있는 여론 지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모씨는 “밖에서 보면 팬덤이니 홀리건이니 하는데, 저희들이 무작정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에 관한 책을 읽어보고 성남시장 시절부터의 행적이나 그가 행한 모든 것들을 훑어보면서 ‘이 사람이 진짜 행정이구나, 추진력 있구나’라고 각자가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후보가 지난 3일 정봉주 후보를 역전하는 등 경쟁이 치열한 최고위원 선거에 대해 당심은 이재명 후보에 적합한 파트너를 향해 있었다.

윤 모씨는 “김 후보가 이 후보에 탁월한 파트너가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 후보 옆에서 힘을 실어주고 (윤 정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전사들을 고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 모씨는 “개인적으로는 고른

능력을 가지고 있는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편, 광주·전남 지역 당 대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결과를 종합한 누적득표율은 4일 기준 이재명 후보가 86.97%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김두관 후보(11.49%), 김지수 후보(1.55%)로 집계됐다.

최고위원 선거 누적득표율 1위는 김민석 후보로 17.58%를 기록했다. 다음 순서로는 정봉주 후보(15.61%)·한준호 후보(13.81%)·전현희 후보(12.59%)·민형배 후보(12.31%)·김병주 후보(11.82%)·이연주 후보(11.17%)·강선우 후보(5.12%)가 뒤를 이었다.

광주·전남 최고위원 선거 권리당원 투표에선 민형배 후보가 약진했다. 광주 광산구를 지역구로 둔 민 후보는 광주에서 27.77%를 득표하고 전남에서도 21.68%를 득표해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전당대회는 오는 18일에 진행되며 당 대표 1명과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한다. 결과는 대의원 투표 14%(온라인), 권리당원 투표 56%(온라인+ARS),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해 발표한다.

／글·사진=윤도현 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개원 후 합의처리 법안 ‘0건’… 野, 오늘 임시국회 소집

접수 법률안 2502건 중 통과안 6건
 與, 법안 표결 때 항의 의미로 불참
 野, 오늘 노란봉투법 처리 추진 예정

국민의 기대와 염원을 품고 출범한 22대 국회가 개원 두 달간 합의 처리한 법안이 ‘0건’에 불과하지만, 거대 야당은 8월 임시국회 소집을 강행하고 있어 ‘정쟁용’ 임시회를 소집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대 국회는 거대 의석수를 바탕으로 한 야당의 입법 강행과 이를 막으려는 여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반복돼 왔다. 또, 거대 야당이 재의결 의결정족수까지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여야가 합의 없이 통과한 법안은 여지 없이 폐기 수순을 밟는 모습을 보였다.

21대 국회 막판 여야는 ‘이태원 참사



추경호(앞줄 왼쪽 일곱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탄핵정국, 불법파업조장 중단’ 민주당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특별법’에 서로 한 발씩 양보하며 합의안을 통과시키고 윤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안을 공포했으나, 여야 대립이 첨예한 22대 국회에서는 ‘합의’란 단어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출범 후 8월4일까지 국회의

안정보시스템에 접수된 법률안은 2502건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6건에 불과하다. 본회의 통과 법률안 6건은 채 해병 특검법, 방송4법, 민생회복지원금법으로, 채 해병 특검법은 이미 재의결 부결로 폐기수순을 밟았고 방송4법과 민생회복지원금

법은 대통령 재의요구 행사를 앞두고 있다. 여당은 본회의에서 6건의 법안을 표결할 때 항의 의미로 불참한 바 있다.

8월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더불어민주당은 5일 열리는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7월 임시국회 막판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상정되자 여당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지연 전략을 펼쳤으나, 민주당은 이를 표결로 종결시켰고, 8월 임시회에서 처리를 노리는 것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4일 논평을 내고 “기어이 상정한 ‘불법 파업 조장법’은 산업계 전반과 노사관계 등 그 근본을 뒤흔들고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 뻔한 독소조항이 가득하다”며 “회기 종료 뒤 곧바로 8월 임시국회를 열고선 이렇게까지 밀어붙여 통과시켜야만 하는 법안이라면, 왜 정권을 잡고 있을 여당이었을 때 처리하지 않고 지

금에 와서야 폭주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총선 민의에 따라 법안을 통과시켰음에도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정부여당의 뜻을 돌렸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야당에 협조를 구해도 모자랄 대통령이 거부권만 남발하고 있으니 한심하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통과시킨 법을 몽니 부리듯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무시, 국회 무시”라고 강조했다.

한편, 22대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경제 법안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반도체 특별법이 대표적이다. 삼성전자대표이사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과, 5선의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각각 반도체 산업 지원 강화를 위한 패키지 법안인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해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공방과 양당의 전당대회 일정 등으로 심사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상황이다. /박태홍 기자 pth7285@

尹, 오늘부터 여름휴가… 군부대·전통시장 등 방문

방송4법 등 거부권 행사여부 고심
 “국무위원도 휴가 모두 가라” 독려

윤석열 대통령(사진)이 5일부터 여름휴가를 떠나 하반기 국정운영 구상에 들어간다.

윤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이른바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야당 단독으



로 통과됨에 따라,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고심을 할 것으로 보인다.

휴가 기간 동안 이들 법안이 정부로 이송될 경우,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 행사에 숙고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 또, 야당 주도로 8월 임시국회를 개최하고 정부여당과 재계가 반대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입법 강행을 예고함에

따라,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운영의 추진력을 얻는 방법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방송4법은 KBS·MBC·EBS의 이사를 수를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미디어 학회 등으로 다양화하는 것이 핵심인 야당 주도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과 방통위 의결정족수를 4명으로 늘리는 방통위법을 말한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으로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

을 지급해 내수 진작을 꾀하는 내용의 특별조치법이다.

정부여당은 해당 법안이 실시되면 약 13조원의 예산이 필요해 재정 건전기조를 해칠 수 있고, ‘처분적 법률’(행정 집행이나 사법 절차 등을 통하지 않고 자동으로 집행력을 가지는 법률)로 정부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과 노동계는 이 법을 통해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

구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재계와 정부·여당은 불법파업이 많아질 것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폐기 수순을 밟은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발의한다는 입장이어서 입법 부로부터의 대정부압박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 본회의 통과, 티몬·위메프발 환불·정산 지연 사태, 가계대출 급증, 광복절 특사 등 시급한 현안도 휴가 중 들여다 볼 예정이다.

／박태홍 기자



SK하이닉스 르네상스의 원년을 만드는
ONE TEAM PLAY

SK하이닉스 4만여 구성원들은 힘을 합쳐
 글로벌 No.1 AI 메모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We Do Technology | **SK hynix**

“자산관리·노후설계 간편하게” 보험업계, 앱 서비스 고도화

캐롯손보 건강 트래킹 기술 결합
KB손보 통합 앱 새단장... UI 개선
교보생명 하루루틴 등 서비스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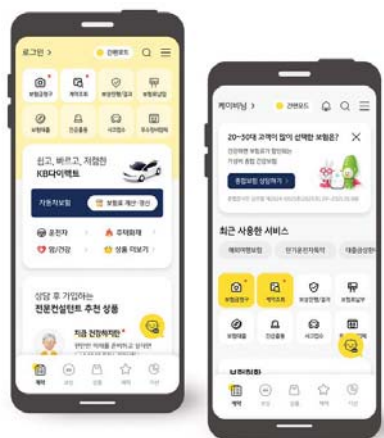
보험업계가 자사 앱 고도화 작업에 나서고 있다. 보험과 고객 간의 접근성을 높이는 앱 개선 작업으로 ‘고객 편의성’과 ‘앱 사용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캐롯손해보험은 지난 4월 모바일 앱을 개편했다. 안전과 건강 트래킹(tracking) 기술을 결합한 개편으로 고객의 앱 참여를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홈화면이 사라지고 좋은 오늘을 만드는 습관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굿데이’ 탭을 신설했다. 굿데이 탭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해당 탭 화면 상단에는 고객 개인별 맞춤형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업데이트해 관련도와 실용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기존 홈화면에서 제공하던 캐롯 굿 드라이브 및 굿워크 서비스와 운세 및 타로 서비스 등도 굿데이 탭에서 만나볼 수 있다.

캐롯손해보험은 “이번 개편은 현재 집중해 만들어진 오늘의 결과가 쌓여 좋은 미래로 이어지게 된다는 캐롯만의 보험에 대한 정의를 기반으로 이뤄졌다”며 “궁극적으로 오늘 잘 견고, 잘



KB손해보험은 지난 6월 자사 통합 앱을 새롭게 개편했다.

운전하는 좋은 습관을 통해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KB손해보험은 지난 6월 앱 통합 1주년을 맞아 ‘KB손해보험 앱’을 새 단장했다. KB손해보험은 작년 6월 업계 최초로 대표 앱과 다이렉트 앱을 하나로 통합한 바 있다. 통합으로 하나의 앱에서 보험가입과 보험금 청구, 전반적인 보험계약 및 자산 관리가 가능해졌다.

이번 개편은 앱 통합 1주년을 맞아 고객 사용성 분석과 의견 청취를 통해 고객이 보다 편리하고 친숙하게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개편된 앱의 메인 화면은 자주 사용하는 메뉴를 최상단에 배치했다.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보험 용어는 이해하기 쉽게 변경했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KB손해보험은 통합 앱 출시 이후 고객 사용성 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각 영역별 개선과제를 도출했다”며 “고객의 보험 경험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앱으로 도약하기 위해 서비스와 기능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보생명은 지난달 앱 서비스 고도화 작업을 마무리했다. 앱 고도화로 교보생명 거래 고객이 아니어도 보험분석, 자산관리, 노후설계, 하루루틴 등의 금융 및 건강 관련 서비스를 보다 정교하게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분석 서비스에서는 이용자가 교보생명 앱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연결하면 모든 보험사에 가입한 전체 보험을 한 번에 모아 보장내역을 점검할 수 있다. 노후설계 서비스는 가입한 연금내역과 국민연금 데이터를 계산하고 예상연금수령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루틴 설정 및 관리 기능을 새롭게 추가했다. 물 마시기, 스트레칭하기, 커피 값 아끼기 등 건강·금융과 관련해 놓치기 쉬운 루틴을 설정해 건강한 하루를 살도록 좋은 습관을 돕는다.

교보생명은 “이번 앱 고도화를 통해 보험계약이 없어도 앱을 다운받고 간단한 가입 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간편하게 앱 상에서 다양한 금융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지난 2일 ‘래미안 레벤투스’ 견본주택을 방문한 예비청약자들이 단지모형도와 분양 안내문을 살펴보고 있다.

“로또 청약 유명”... 견본주택 구름인파

현장르포

래미안 레벤투스

강남 위치... 분양가상한제 적용
“완공시점 5억대 시세 차익 예상”

“일찍 왔으니까 빨리 청약 상담 받아 보자.”

지난 2일 방문한 ‘래미안 레벤투스’ 견본주택. 오전 10시 오픈과 함께 아파트 청약 상담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몰렸다. 레벤투스는 서울 도곡삼호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단지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분양가 적용 단지는 일명 ‘로또 청약’으로 불린다. 시세보다 싼 가격에 분양을 받을 수 있어 최근 청약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레벤투스는 지하 3층~지상 최고 18층 4개동, 308가구 규모로 조합원과 임대분을 제외한 133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45~84㎡ 총 7타입을 선보이며 ▲45A㎡ 20가구 ▲45B㎡ 6가구 ▲58A㎡ 18가구 ▲58B㎡ 66가구 ▲74A㎡ 12가구 ▲84A㎡ 4가구 ▲84B㎡ 7가구에 입주 가능하다.

도보 1분 거리에는 도곡중학교와 강남세브란스병원이 자리한다. 학세권이라는 점, 대형 병원 바로 앞에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일반분양 주택이 들어서는 2단지 남쪽에서 보면 병원 부속 시설인 장례식장이 보이는 것이 흠이다.

이 아파트에는 청약 신청자가 몰릴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달 29일 분양을 시작한 래미안 원퀀타스가

20억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했던 만큼은 아니지만 인근 아파트 실거래가와 비교했을 때 5억원 정도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강남구 도곡동에 들어서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이점이다.

분양가는 ▲45A㎡ 12억2390만~12억9990만원 ▲45B㎡ 12억2420만~13억3440만원 ▲58A㎡ 16억2790만~17억1990만원 ▲58B㎡ 15억5390만~16억9990만원 ▲74A㎡ 19억9490만~20억9490만원 ▲84A㎡ 22억4270만~22억7680만원 ▲84B㎡ 21억6690만~22억2210만원이다.

예비청약자 이정현(43·서울 송파구 위례동)씨는 “집이랑 가까워서 근처 분양 아파트들을 돌아보는 중이다”라며 “특히 여기는 로또 청약으로 유명해서 와 봤다”고 한다. 이어 이씨는 “완공 시점에 5억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 많다”며 “둘러보니 좋은 것 같아 청약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래미안 레벤투스는 오는 6일과 14일 각각 1·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전지원 기자 jw13@

맥 못추는 비트코인... 6만달러선 ‘위태’

연준 금리인하 시그널에도 하락세
“11월 美 대선 결과에 따라 시세 변동”

이번 주 7만달러를 돌파했던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6만1000달러까지 하락해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9월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투자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비트코인 호재로 꼽히는 트럼프 당선 가능성도 불확실해지면서 미국 대선 결과가 향후 비트코인 가격을 결정할 전망이다.

4일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6만1000달러대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29일 7만달러를 회복했지만 이후 하락전환하면서 4거래일째 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7일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린 ‘2024 비트코인 콘퍼런스’에 참석해 비트코인 사업 육성에 대해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현재 보유하거나 미래에 획득하게 될 비트코인을 100% 전량 보유하는 게 내 행정부의 정책이 될 것”이라며 “이것은 사실상 미국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량의 핵심이 될 것으로 엄청난 부를 모

든 미국인이 혜택을 입도록 영구적인 국가 자산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보유한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말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방정부가 현재 보유한 비트코인은 약 21만개로 전 세계 공급량의 1%를 갖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으로 비트코인은 장중 7만달러를 돌파했지만, 이틀 뒤 바이든 정부가 보유한 2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익명의 주소로 이체 후 매각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락했다.

또한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준이 다음달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했음에도 비트코인 가격은 가파르게 하락했다.

비트코인은 위험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주식과 마찬가지로 금리 방향성에 따라 투자 수요가 결정된다. 금리인하 가능성에 따라 위험자산의 매력이 높아지면 시중 유동성은 증가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리인하 기대에 대한 상승분이 이미 시장에 반영됐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움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오는 11월로 예정된 미 대선 결과에 따라 비트코인 시세가 결정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달 트럼프 전 대통령 총격 사건으로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 할 것이란 반응이 지배적이었지만 최근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 확률이 트럼프 후보와 점차 대등해지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반(反) 가상자산적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에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는 악재다.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미국 증권거래소(SEC)의 압박이 지속되면서 더 엄격한 암호화폐 규제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해리스 부통령의 선거 캠프는 암호화폐 기업들과 접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해리스 부통령은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처럼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 상승이 트럼프 후보의 당선을 유력하게 봤던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믿음을 흔들었다는 반응이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해리스가 트럼프와 점차 대등해지며 디지털자산 산업에 대한 시장은 해리스의 입장만 바라보는 상황이다”며 “당분간 가상자산 가격은 해리스의 입장에 따라 좌우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래미안 레벤투스’ 견본주택에 방문한 예비청약자들이 84㎡ 타입을 보고 있다.

/전지원 기자

유성·용인 등 8개 단지 6096가구 분양

분양 캘린더

8월 첫째 주에는 전국 8개 단지 총 6096가구(일반분양 5302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도곡동 ‘래미안레벤투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고양장항아테라’, 인천 서구 불로동 ‘검단아테라자이’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견본주택은 서울 강서구 공항동 ‘더 트루엘마곡HQ’, 인천 연수구 송도동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5차’, 경기 용인시 포곡읍 ‘용인둔전역에피트’ 등 5곳이 오픈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대전 유성구 용계동 대전도안2-5지구 29·31블록에 들어서는

‘도안푸르지오디아텔’을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2층, 13개동, 총 1514가구 중 전용면적 59~215㎡ 1134가구(29블록 578가구, 31블록 556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2028년 개통 예정) 목원대역·용계역 트램 역세권이며, 2027년 용계초 개교에 따른 초품아 단지가 될 예정이다. 단지 인근 갑천생태공원(2025년 준공 계획)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HL디앤아이하라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리 일원에서 ‘용인둔전역에피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13개동, 전용면적 68~101㎡, 총 1275가구 규모다.

/전지원 기자

“사업구조 재편으로 1兆 투자여력 발생... 원전사업에 투입”



두산에너지빌리티·밥캣·로보틱스 대표사 명의로 주주서한 게재 “주주들과 더욱 소통해 나갈 것”

5년간 체코원전 등 10기 수주 예상 SMR 사업, 62기 수주목표 초과 전망

두산에너지빌리티가 그룹 사업 구조 재편을 통해 약 1조원의 투자 여력을 확보해 원전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는 AI(인공지능) 및 무인화 기술을 비롯해 해외 네트워크에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두산에너지빌리티, 두산밥캣, 두산로보틱스 등 3개사는 대표이사 명의로 일제히 주주서한을 냈다고 4일 밝혔다. 임시주주총회 참석 대상 주주 명부가 확보되는 5일 서한 발송을 개시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각 사 홈페이지에 먼저 서한을 게재했다.

주주서한은 지난 7월 11일 그룹이 내놓은 사업구조 재편 관련, 주주와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그동안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두산 관계자는 “각 사 비즈니스 밸류

를 높여서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깊은 고민과 검토 끝에 내놓은 사업 재편 방안인데 예상과 다른 시장 반응이 나와서 여러 경로로 많은 이야기를 들어봤다”며 “이번 사안의 가장 당사자인 주주들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이번 서한을 비롯해 주주들과 더욱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들은 서한에서 사업 재편을 통해 달성하려는 성장 전략을 설명했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원자력 발전 분야의 세계적 호황으로 전례 없는 사업기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두산밥캣 분할 등 사업구조 재편이 이뤄지면 발생하는 1조원 수준의 투자여력을 원전사업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상현 두산에너지빌리티 대표는 서한에서 “체코 원전에 이어 폴란드, UAE, 사우디, 영국 등의 신규 원전 수주도 기대되면서 향후 5년 간 체코를 포함해 총 10기 내외의 수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SMR(소형모듈원전) 사업에 대해서도 “최근 AI를 위한 전력 수요의 유력한 대안으로 대두되면서 회사가 수립한 5년 간 62기 수주 목표를 대폭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

고 말했다.

박 대표는 “현재 계획된 수주는 회사의 원자력 주기기 제작 용량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어서 향후 5년 간 연 4기 이상의 대형원전 제작 시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연 20기 규모의 SMR 제작 시설을 확충하는 목표를 수립했다”고 밝히고 “신기술 확보 및 적시의 생산설비 증설을 위해 현금 확보와 더불어 추가 차입여력 확보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두산밥캣 분할을 포함한 이번 사업구조 개편을 마치면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차입금 7천억원 감소 ▲비영업용 자산 처분을 통한 현금 5000억원 확보 등의 재무적 성과를 거두게 된다.

박 대표는 “추가로 생기는 차입여력과 확보되는 5000억원의 현금 등 1조원 수준의 신규 투자여력이 발생한다”며 “이는 생산설비 증설에 신속히 투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두산밥캣 분할 시 배당수익이 줄어드는 우려에 대해 박 대표는 “배당수익은 두산밥캣의 영업실적에 따라 매년 변동할 수밖에 없고, 두산에너지빌리티가 필요로 하는 투자재원에도 한참 부족한 수준이다”며 “반면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확보하는 1조원을 미래성장동력에

투자할 경우 배당수익보다 훨씬 높은 투자수익율로 더 많은 이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박 대표는 분할비율과 관련해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조심스러우나 주가는 기업가치와 주식수에 의해 결정되는데, 분할 시 두산에너지빌리티의 주식수는 25% 감소하는 반면 기업가치는 10%만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따라서 재상장 시점 두산에너지빌리티 주식의 주당 가치는 두 비율의 차이만큼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두산밥캣은 주력 사업영역인 건설, 조경, 농업, 물류 분야의 소형장비 사업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에 기반한 무인화·자동화 트렌드’가 이번 사업재편 추진의 배경임을 밝혔다.

스카박 두산밥캣 대표는 “양사 공통 영역인 인공지능 및 무인화·자동화 요소 기술 확보를 위해 선도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인수합병, 제휴 등을 공격적으로 추진해 기술확보를 가속화하고 추가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전문용 서비스 로봇시장을 선점하고자 한다”면서 “양사의 투자 프로세스를 일원화해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투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존에 보유하던 자사주 이외

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를 전부 소각할 예정”이라 밝히며 배당과 관련해 “당사가 현재까지 실시해 온 배당정책을 통합법인이 승계해 배당규모를 유지하고 통합법인의 사업적 성과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밸류업’ 방안을 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류정훈 두산로보틱스 대표는 “두산밥캣과의 통합으로 시너지를 창출해 사업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로봇의 최대 시장인 북미, 유럽 시장에서 압도적 네트워크와 비즈니스 인프라를 갖춘 두산밥캣과 통합하면 이 최대 시장에서 고객에 대한 접점이 현재 대비 약 30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양사 간 시너지 창출을 통해 두산로보틱스는 5년 내 매출 1조원 이상 회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3개사 대표들은 주주서한에서 “이번 사업구조 개편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의사에 따라 최종 결정되는 것”이라며 “이번 사업구조 개편이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성장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믿고 있으며, 미래 성장 모습을 감안해서 현명함의 의사결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입을 모았다. /차현경기자 hyeon@metroseoul.co.kr

현대차 ‘아이오닉 5 N’, 獨서 BMW보다 앞선 경쟁력 입증

아우토 자이퉁, 고성능차 비교평가 BMW M2와 5가지 평가항목 진행 아이오닉 5 N, 89점 차이로 제쳐

현대자동차가 독일서 고성능 전기차 기술력을 입증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고성능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 N’이 독일 유력 자동차 전문 매거진 ‘아우토 자이퉁’에서 실시한 고성능차 비교테스트에서 BMW의 대표 고성능 내연기관 모델 ‘M2’를 앞서며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아우토 자이퉁은 자동차의 본고장 독일의 3대 자동차 전문지 중 하나로 독일 뿐만 아니라 유럽 소비자들에게 높은 신뢰를 받고 있으며 차량 구매 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다.

아우토 자이퉁 최근호에 게재된 이번 고성능차 비교평가는 고성능 전용 전기



현대차 아이오닉 5 N.

차 아이오닉 5 N과 내연기관 고성능 대표모델인 BMW M2, 2개 모델을 대상으로 ▲차체(Body) ▲주행 편의(Driving Comfort) ▲파워트레인(Powertrain) ▲역동적 주행 성능(Driving Dynamic) ▲친환경·경제성(Environment/Cost) 등 5가지 평가항목에 걸쳐 진행되었다.

아이오닉 5 N은 다섯가지 평가 항목 중 ▲차체 ▲주행 편의 ▲파워트레인 ▲친환경·경제성 4개 항목에서 모두 앞서며 총점 2783점을 기록, M2(2694점)를 89점 차이로 제치고 우수한 상품성을 인정받았다.

역동적 주행 성능 부분에서는 아이오닉 5 N의 전기차 특성 상 M2 대비 약

500kg 무거운 공차중량으로 인해 다소 열세를 보였지만, 아우토 자이퉁은 아이오닉 5 N이 2.2톤에 달하는 공차중량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성능을 발휘한다고 평했다.

특히 아이오닉 5 N은 매우 사실적인 주행음과 더불어 정지상태에서 200km/h까지 단 11.3초만에 도달하는 동력성능은 매우 인상적이고, 이는 M2 대비 무려 1.2초나 더 빠른 기록이라며 놀라움을 표했다.

이어 일상에서도 편안한 주행을 가능케 하는 서스펜션 세팅과 함께 넉넉한 공간감과 전기차 특유의 경제적인 유지관리 비용을 내세워 아이오닉 5 N의 손을 들어줬다.

BMW의 준중형 2시리즈 기반의 고성능 모델인 M2는 최고출력 460마력, 최대토크 56.1kg·m의 고출력을 갖추고

도 1.7톤에 불과한 가벼운 무게와 짧은 휠베이스 등을 적용해 특유의 민첩함을 자랑하는 고성능차로 유럽 시장에 정평이 나왔다.

아이오닉 5 N이 이와 같은 M2를 상대로 고성능차 비교평가에서 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유럽 고성능차 시장에서 현대차의 우수한 경쟁력을 입증한 사례로 그 의미가 깊다.

아이오닉 5 N은 N브랜드가 내놓은 최초의 고성능 전기차로, 현대차의 첨단 전동화 기술을 집약해 주행성능을 극한으로 끌어올린 것이 특징이다.

고성능 사륜구동 시스템을 바탕으로 전·후륜 모터 합산 478kW(650마력, 부스트 모드 기준)의 최고 출력과 770Nm(78.5kgf·m, 부스트 모드 기준)의 최대 토크를 자랑하며, 84kWh의 고출력 배터리와 고성능 EV 특화 열관리 제어 시스템 등 다양한 고성능 전기차 N 전용 기술들을 적용해 압도적인 주행성능을 갖췄다.

/양성운 기자 ysw@

중기부,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선정

전 세계 19개국 40개 外인 창업팀

전세계 19개국의 40개 외국인 창업팀이 한국에 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2024’에 신청한 114개국, 총 1716개팀 중 국내 엑셀러레이팅 등을 지원할 19개국, 40개팀을 최종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는 우수한 외국인 창업팀의 국내 법인 설립과 정착을 지원하는 중기부의 대표적인 인

바운드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195개사의 국내 법인 설립과 364건의 창업 비자 발급을 지원했다.

중기부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2024’ 참여팀을 공개 모집했다. 여기에 114개국, 총 1716개팀이 신청하며 43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후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명단을 결정했다.

분야별로는 ▲IT&SW 11개팀(27.5%) ▲ESG&Green Tech 10개팀(25%) ▲Bio&Healthcare 6개팀

(15%) 등 신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외국인 창업팀이 최종 선정됐다. 대륙별 분포는 아시아 22개팀(55%), 유럽 10개팀(25%), 아메리카 8개팀(20%) 순이다.

중기부는 9월부터 최종 선정팀을 대상으로 3개월 보름간 국내 엑셀러레이팅 및 참가지원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12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컴엑스 2024와 연계해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데모데이를 개최, 이중 상위 5개팀에게는 총 40만 달러 규모의 상금을 지급하고, ‘Top 20개팀’에는 국내 추가 엑셀러레이팅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bada@

삼성SDI, 북미 석·박사 우수인재 확보 나서

‘Tech&Career 포럼’ 행사

삼성SDI가 북미 지역 석·박사급 글로벌 우수 인재 확보에 나섰다.

삼성SDI는 미국 보스턴에 위치한 하얏트 리젠시 캠브리지 호텔에서 올해 첫 ‘Tech & Career 포럼’ 행사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Tech & Career 포럼’은 주요 경영진들이 직접 나서 우수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석·박사급 인재 초청 행사다. 행사가 열린 보스턴은 삼성SDI의 미국 내

첫 번째 연구소인 SDIRA(SDI R&D America)가 위치한 곳이다. 이 연구소에서는 배터리 혁신 기술과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행사는 최윤희 삼성SDI 사장과 참석자들 간의 대화 프로그램인 ‘비전(Vision) 토크’를 비롯해 연구소장의 키노트 스피치 등으로 이루어졌다.

최 사장은 비전 토크에서 ‘초격차 기술력을 통해 지속가능한·친환경 미래 사회 구현’이라는 비전을 실현하는데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백대성 기자 iunm@

잘 나가는 HEV... 멈춰선 EV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현대차그룹, 시장대응 '구슬땀'

상반기 HEV 판매 40만대 돌파
카니발 등 미니밴 신규 모델 추가
"유연한 대응체계로 수익성 제고"

현대자동차그룹의 전기차(EV)와 하이브리드차(HEV)가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에서 극명한 온도차를 나타내고 있다. HEV 판매 비중은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가는 반면 EV는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4월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의 HEV 판매 비중은 상반기 기준 처음으로 올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사는 올해 상반기 전체 361만9631대를 판매했으며, 이 중 HEV가 차지하는 비중은 11.3%(40만8799대)로 집계됐다.

반기 기준으로 현대차·기아 전체 판매에서 HEV가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고, 하이브리드 판매 대수가 40만대를 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

·기아는 EV뿐만 아니라 HEV 모델(PHEV 포함)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유지, 지속적으로 판매량을 늘리고 있다. 특히 올 상반기 현대차와 기아의 전체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했지만 HEV 판매량은 같은 기간 21.2% 급증했다. EV 판매가 같은 기간 17.0%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HEV의 인기를 이끈 핵심 라인업은 스포츠유틸리티차량이다. 올해 상반기 현대차 투싼 HEV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8만5000대가량 팔렸다. 쏘타제 HEV의 판매량도 4만5100대로 같은 기간 80.0% 급증했다. 기아는 스포티지 HEV가 14.0% 늘어난 6만7600대, 쏘렌토 HEV가 14.2% 증가한 4만3300대씩 판매됐다.

이러한 HEV 실적 상승은 최근 2~3년간 전기차 캐즘을 겪으며 주춤하는 사이 현대차·기아가 그 대안으로 HEV를 내세워 시장을 공략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현대차·기아는 승용 모델인 아반떼 HEV, 그랜저 HEV는

물론 레저용 차량(RV)에서도 소형부터 중형까지 대부분 차종에 HEV 모델을 내놨다. 두 회사는 현재 16종에 달하는 HEV 모델을 판매 중이다. 최근에는 카니발, 스타리아와 같은 미니밴에도 HEV 모델을 추가했다. 이와함께 현대차는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도 HEV 모델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현대차그룹메타플랜트(HMGM A)에서 전기차뿐만 아니라 HEV 모델 생산 시설을 갖추겠다는 계획도 공개한 바 있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당분간은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비해 HEV 모델 개발과 판매에 집중하는 유연한 대응 체계를 가져가는 게 시장에서 판매량 확보와 수익성 제고에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전동화 전환이 필수적인 만큼 신규 전기를 지속 투입해 전기차 시장 선도적인 지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LS전선, LS EV 코리아 멕시코공장 착공식

지난 2일 멕시코 케레타로주 코레이도라시 산업단지에서 버스덕트 공장 착공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LS전선

LS전선, 버스덕트·배터리 부품 공장 착공

멕시코 케레타로주 산단 위치
북미시장 수출 거점 육성 방침

LS전선이 멕시코에 신규 공장을 착공하며 최근 미국 해저케이블 공장 건설 결정에 이어 북미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LS전선은 지난 2일 멕시코에 버스덕트(Busduct)와 전기차 배터리 부품 공장 등 두 개의 공장을 착공했다고 4일 밝혔다.

멕시코 중부 케레타로주 산업단지에 약 12만6000㎡(약 3만8000평) 부지에 연면적 1만6800㎡(5082평)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며 2025년 하반기부터 제품을 양산하게 된다.

LS전선은 케레타로 공장을 북미 시장에 대한 수출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멕시코는 저렴한 인건비와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

CA)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최적의 입지로 평가받고 있다.

대용량 전력 배전 시스템인 버스덕트는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공장 및 데이터센터 등에 공급될 예정이다. 멕시코 공장은 경북 구미, 중국 우시 공장과 LS에코에너지의 베트남 호찌민 공장에 이어 LS전선의 네 번째 버스덕트 생산 거점이 될 것이다.

LS전선은 또한 배터리 부품도 생산할 예정으로, 폴란드 공장과 함께 배터리 부품 사업의 핵심 생산 거점으로 육성할 전략이다.

LS전선 관계자는 "그동안 축적한 경험과 기술력, 멕시코의 산업 인프라와 제조 경쟁력을 결합해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특히 버스덕트의 경우 AI 데이터센터 시장의 확대에 높은 성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조선업계, 줄파업 '암초'... 호황기 제동 걸리나

임단협 난항... 노조 잇달아 파업 예고
"노사 갈등 피하고 힘 모아야 할 때"

조선업계가 올해 상반기 호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불안한 노사관계가 향후 성과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의 긍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노사 갈등은 기업의 안정성과 성장 잠재력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4월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 노조 관련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서 열린 쟁의조정 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이 나왔다.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HD현대중공업 노조가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것이다.

HD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6월 4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교섭을 이어왔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서 15만9800원 인상, 성과급 산출 기준 변경, 정년 연장, 승진 거부권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여름 휴가가 끝나는 오는 8일 이후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 돌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측과 임단협 갈등을 빚고 있는 한화오션 노조 또한 휴가 복귀 후 본격적인 투쟁을 예고하면서 긴장감이 일고 있다. 한화오션 노조는 지난 5월 말부터 시작된 사측과의 임단협 마무리를 짓지 못한 상태다. 이에 지난 15일 조합원 투표를 통해 파업을 가결했다.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도 지난 7월 22일 조합원 투표로 파업을 가결했다.

국내 조선업은 십수 년 만에 호황기에 들어섰다. 업황을 가늠하는 지표인 신조선가치수는 16년 만에 최고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조선해운 시장 분석

업체 클라크스너리처에 따르면 이 지수는 지난 7월 중순에 187.91까지 치솟았다.

HD현대그룹의 조선·해양 중간지주사 HD한국조선해양은 올해 상반기 매출액 12조1311억원, 영업이익 5366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7.8%, 92% 증가했다. 한화오션은 상반기 매출액 4조8197억원, 영업이익 433억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47.8% 증가, 흑자 전환했다. 삼성중공업 역시 상반기 매출액 4조8798억원, 영업이익 2086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각각 37.4%, 165.7%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조선업계가 16년 만에 호황기를 맞이한 만큼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노사 갈등을 피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라며 "노조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협력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LG U+ "연내 '우리가게패키지 AX 솔루션' 고객 3만명 확보"

1만여건 데이터 활용 솔루션 개선

LG유플러스가 현재 1만2000명 수준인 'U+우리가게패키지 AX 솔루션' 사용 고객을 연내 3만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음식점 '파브리키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LG유플러스는 약 1만여건의 데이터를 활용해 100여개 이상의 인사이트를 도출, 솔루션 개선 및 영업 과정에 접목한다는 방침이다.



고객이 U+POS를 이용해 결제하는 모습 /LG U+

LG유플러스는 요식업 사장님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 식당을 직접 운영해 고객 경험을 생

생하게 체험해 보는 프로젝트 '식당연구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강남점 '만두배우는 식당'에 이어 올 4월 용산점 '파브리키친'을 열고 AI 전환(AX) 솔루션을 포함한 'U+우리가게패키지'를 사장님 관점으로 시험해 보고 사소한 고객 불편까지 찾아서 개선해 나가고 있다.

LG유플러스는 두 식당을 운영하며 얻은 인사이트를 'U+우리가게패키지 AX 솔루션'에 지속 적용하고 고객 편의성 극대화를 위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카카오프렌즈와 '서울 씬머비치' 즐기세요"

카카오 새로운 캐릭터 IP경험 제공

카카오는 카카오프렌즈가 도심에서 여름철 피서를 즐길 수 있는 '2024 서울 씬머비치'에 참여한다고 4일 밝혔다.

2024 서울씬머비치는 서울관광재단이 주최하는 행사로 올해 2회차를 맞았다. 이번 행사는 더 많은 시민이 광화문 광장에서 여름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2배 커진 물놀이 시설로 개장했다. 오는 11일까지 운영된다.

카카오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프라인에서 새로운 캐릭터 지식재산권(IP)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행사에 참여했다.

행사 기간동안 광화문 광장의 세종



'2024 서울씬머비치' 전경. /카카오

대왕 동상 뒤 워터파크 존은 카카오프렌즈로 꾸며진다. 수영모와 고글을 쓴 라이언과 춘식으로 장식된 약 7.5m 높이의 워터 슬라이드(미끄럼틀) 2개와 40m 길이의 대형 수영장을 중심으로, 포토존과 이벤트존을 마련해 다채롭게 행사를 즐기도록 구성했다.

/이혜민 기자 hyem@

네이버, '지식iN PARIS 3382' 이벤트

평일 오후 3시 33분 질문 업로드

네이버가 제33회 파리 올림픽을 맞이해 '지식iN PARIS 3382' 이벤트를 오는 12일까지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식iN PARIS 3382는 지식iN에서 제33회 파리올림픽 관련 토픽에 대해 삼삼오오 모여 빨리 이야기한다는 중의적 의미를 담았다.

이용자들은 이벤트 기간 내 지식iN '오늘의 질문' 카테고리 평일 오후 3시 33분에 2개씩 올라오는 질문에 답변을 남기면 된다. 질문으로는 올림픽을 주제로 10·20세대가 빠르게 반응하고

답할 수 있는 것이 올라온다. 예를 들어 '닭고기는 올림픽 선수보며 생각난 요즘 내 추구미는', '경기 전 루틴처럼 중요한 날 나만의 행운 루틴은', '선수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MBTI별 친해하는 방법' 등이다.

총 20개의 질문이 업로드될 예정이며 ▲각 질문에 선착순 82명 내로 이미지나 링크를 넣어 답변을 남긴 이용자(1640명) ▲이벤트 기간 10개 이상의 오늘의 질문에 답변을 남긴 이용자(330명) ▲각 질문에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이용자(200명)에게 소정의 네이버 포인트를 지급한다. /이혜민 기자

국내 ETF 시장, 160조 돌파 눈앞 자산운용사들 '수수료 전쟁' 돌입

ETF 시장 점유율 확보 총력전
KB운용, RISE ETF 13종 인하
키움운용, KOSEF 200 등 2종

투자자들, 인하 경쟁 긍정적 평가
업계, '출혈 경쟁' 우려 목소리 ↑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규모가 150조원을 넘어 160조원을 향해 가는 가운데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시장 점유율 확보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특히 특정 ETF 운영 보수(수수료)를 내리며 자사의 ETF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다. 투자자들에게는 희소식이지만 업계에서는 '출혈 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ETF 전체 시장 규모는 약 157조 897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 수치인 104조 6977억원보다 50.81% 가량 증가한 규모다.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ETF 시장 속에서 KB자산운용은 지난달 31일부터 'RISE ETF 13종'의 총보수를 기존 연 0.021~0.35%에서 연 0.01%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대표적으로 ▲RISE 미국S&P배당킹 ▲RISE 글로벌자산배분액티브 ▲RISE 미국반도체NYSE ▲RISE 버크셔포드폴리오TOP10 ▲RISE 미국AI 밸류체인TOP3Plus 등의 수수료를 기존 0.02~0.35%에서 0.01%로 내렸다.

같은 날 키움투자자산운용도 ▲KOS EF 200 ▲하이로드 리츠이리지스액티브 ETF 2종의 보수를 연 0.52%에서 0.3%로, 0.13%에서 0.05%로 각각 낮췄다.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수수료 인하



최근 국내 자산운용업계에서는 ETF 운영 보수를 내리는 회사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Chat Gpt로 생성한 이미지

움직임은 ETF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자산운용과 2위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대결구도에서 먼저 발생했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수수료 인하를 단행한 첫 회사는 삼성자산운용으로, 지난 4월 미국S&P500%TR 등을 필두로 미국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ETF 4종의 총보수를 연 0.05%에서 연 0.0099%로 낮췄다.

삼성자산운용 측은 "수수료 인하로 점유율을 확보하는 게 목적이었기 보다는 토탈리턴(TR) ETF를 투자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수수료 인하'를 홍보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라며 "TR ETF는 배당금을 분배하는 대신 자동으로 재투자해 복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품으로 장기 투자에 유리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산운용 업계에서는 삼성자산운용의 수수료 인하 행보를 ETF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한 공격적인 전략으로 판단한 모습이다. 이어 삼성자산운용의 뒤를 바짝 쫓고 있는 미래에셋운용도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

티브(합성) ETF' 총보수를 단 0.0001% 낮춘 연 0.0098%로 인하한 바 있다.

투자자들은 이런 자산운용사들의 경쟁확산을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다. 최근 ETF를 매수한 한 투자자는 "연금저축계좌에서 ETF를 굴리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미국 지수를 추종하면서 수수료가 낮은 ETF를 구매했다"며 "금액이 높을수록 수수료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 운용사들의 경쟁은 환영할 만하다"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당분간은 수수료 인하 랠리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이어질 거라고 전망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결국 수수료를 낮추는 건 쉬워도 다시 높이는 실현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에 한번 낮출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며 "모든 ETF 상품의 수수료를 낮출 수는 없고 '출혈 경쟁'이란 말이 나올 정도지만, 지금처럼 시장이 커지고 있을 때 점유율을 확보하는 것은 운용사들에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SOL 조선TOP3플러스' 장단기 수익률 1위

신한운용, 1개월 19.10%, 6개월 58.36%

신한자산운용은 조선투자 집중투자하는 유일한 상품인 'SOL 조선 TOP3 플러스' ETF가 1개월, 6개월 수익률 각각 19.10%, 58.36%를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국내에 상장된 873개 상장지수펀드(ETF) 중 1위다.

김정현 신한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국내 5대 조선사 중 한화오션을 제외한 4개사가 실적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연간 실적의 추정치도 큰 폭으로 상향됐다"며 "국내 조선주는 신조선가(새로 건조하는 선박의 가격)의 지속 상승과 실적 모멘텀에 더해 미국과 중국의 군비 경쟁, 트럼프 후보의 미국 내 에너지 활성화 정책에 따른 LNG 선박 수요 증가, 수출에 유리한 고환율 환경 등 업황 전반에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선업의 호황이 장기간 이어질 것

/신하은 기자

으로 전망하는 투자자들의 수요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SOL 조선TOP3 플러스 ETF는 연초 이후 개인투자자가 약 1000억원을 순매수했으며, 최근 한 달간 330억원 이상을 매수하며 160억이던 순자산 규모를 반년 만에 15배 이상 불렀다.

김 본부장은 "조선업의 호황이 이어질수록 낙수효과에 따라 배를 건조하는데 필요한 조선 기자재의 수요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조선 기자재 기업의 실적도 크게 개선되며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SOL 조선TOP3 플러스 ETF의 구성종목인 한화엔진, ST X중공업(HD현대마린엔진) 등의 선박 경쟁, 트럼프 후보의 미국 내 에너지 활성화 정책에 따른 LNG 선박 수요 증가, 수출에 유리한 고환율 환경 등 업황 전반에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KB증권, 아프리카 가나에 지속가능 숲 생산

글렌코어·서튼지티에스 업무협약

KB증권은 글렌코어(Glencore) 및 서튼지티에스(CERTAIN GTS)와 함께 아프리카 가나의 탄소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 숲 생산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글렌코어는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 최대의 종합 천연자원 회사 중 하나로 15만명이 넘는 직원 및 계약 직원들과 함께 35개 이상의 국가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에너지 수요 충족과 탈탄소화를 돕는 상품의 개발부터 제작 및 재활용, 유통사업까지 영위하고 있다.

서튼지티에스는 글로벌 탄소 감축 프로젝트 설계와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이번 사업에 대한 기술역량 확보 및 글로벌 투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아프리카 가나 사업에 집중하고 있으며, 한국의 에코베서스 카본크레딧과 케이씨씨티에스가 공동 투자하여 만든 합작법인이다.

KB증권은 ESG경영 실천을 위해 글로벌 기업과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했다. 글렌코어와 함께 아프리카 가나의



KB증권 본사 전경. /KB증권

탄소 감축 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파리협정(2020년 이후 기후 변화 대응을 담은 국제협약) 제6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실적(ITMO)을 인수할 예정이다. 또한, 서튼지티에스는 프로젝트의 개발자로 사업기획 및 사업관리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최신 모범 사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유치국인 가나와 참여국인 스위스 양자 간의 협정에서 승인된 조건에 따라 사업이 등록돼 진행될 예정이며, 사업의 개발 단계부터 사업규모와 참여국의 확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신하은 기자

신작 '퍼스트 디센던트' 흥행에 신고가 경신

metro 관심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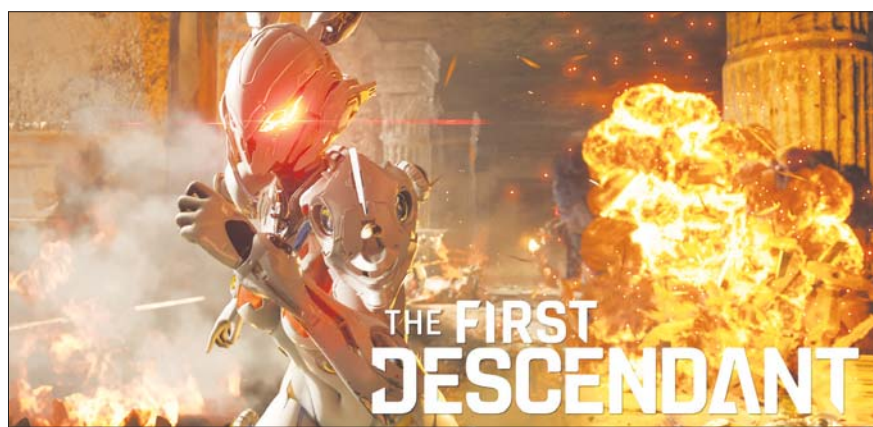
넥슨게임즈

이달 1일 전 거래일비 21% 급등
삼성증권 "추가 상승 여력 충분"

넥슨게임즈의 주가가 신작 게임 '퍼스트 디센던트'의 흥행 기대감에 따라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익추정치가 지속적으로 상향되면서 일부 증권사들은 최근 한 달 내 목표주가를 두 차례씩 올리는 등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넥슨게임즈는 지난달에만 주가가 54.74% 상승했다. 이달 1일에도 전 거래일보다 21.01%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다. 마지막 거래일인 2일 종가는 2만8500원이다.

삼성증권은 최근 한 달 내 넥슨게임즈의 목표주가를 두 차례 올리기도 했다. 지난달 9일 기준 1만6000원이었던 목표가를 2만8000원으로 상향했으며, 이달 2일에도 3만7000원으로 재차 조정했다. 이와 함께 2024년과 2025년 영업이익 추정치도 각각 38%, 42%씩 상



퍼스트 디센던트 게임 포스터. /넥슨

향했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최근 주가가 급했으나 이보다 빠르게 이익 추정치 상향되고 있어 추가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상상은증권도 지난달 17일 넥슨게임즈의 목표주가를 2만5000원으로 상향했던 것에 이어 지난 1일에도 3만6000원으로 재조정했다. 최승호 상상증권 연구원은 "넥슨게임즈는 통련할 수 있는 기로를 닦고 있기에 지식재산권(IP) 가치 상승을 반영해야 하며, 밸류에이션 추가 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넥슨게임즈의 신작 '퍼스트 디센던트'

트'는 국내보다 해외, 특히 서구권에서 반응이 오고 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최 연구원은 "세계 2위 시장인 중국에서 상대적으로 어렵고 있지 못한 점은 아쉽다"면서도 "기존과는 다른 스토리로 서구권과 일본 등을 공략하고 있는 퍼스트 디센던트의 사례는 분명 경이롭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퍼스트 디센던트 이후 대기 중인 파이프라인도 국내 최상급이라고 부연했다. 상상증권에 따르면 던전앤파이터 오픈월드 모바일이 내년 4분기 출시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신하은 기자 godhe@

KB운용, 美 30년국채 ETF 월배당금 지급

퇴직연금·연금저축계좌서 100% 투자

KB자산운용의 'RISE 미국30년국채액티브 ETF'가 월분배금을 지급했다고 4일 밝혔다.

'RISE 미국30년국채액티브 ETF'는 출시 이후 7, 8월 두 번의 분배금을 확정했다. 7월 2일에는 첫 분배금으로 주당 48원(분배율 0.46%)을, 8월 2일에는 주당 42원(분배율 0.41%)을 지급했다. 미국30년국채에 투자하는 액티브ETF 중 두 달 연속 가장 높은 분배율을 보였다.

지난 5월 출시된 'RISE 미국30년국채액티브ETF'는 미국에서 발행한 'A A+' 신용등급 장기국채 및 장기국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상품(ETP)에 투자해 매달 이자를 받는 월배당형 상품이다. 'RISE 미국30년국채액티브 ETF'의 듀레이션(가중평균만기)은 약 20~21년 수준으로, 일반적인 미국 30년 국채 듀레이션(약 16년)보다 1.3배 더 길게 투자하는 것이 특징이다. 금리가 1% 하락할 때 채권 가격 상승폭이 기존 미국 30년 국채 대비 약 4% 더 크며, 이러한 액티브 전략을 활용해 금리 인하 시기에 상대적으로 더 큰 가격 변동을 추구할 수 있다. 아울러 퇴직연금과 연금저축계좌에서 100% 투자가 가능하다.

/신하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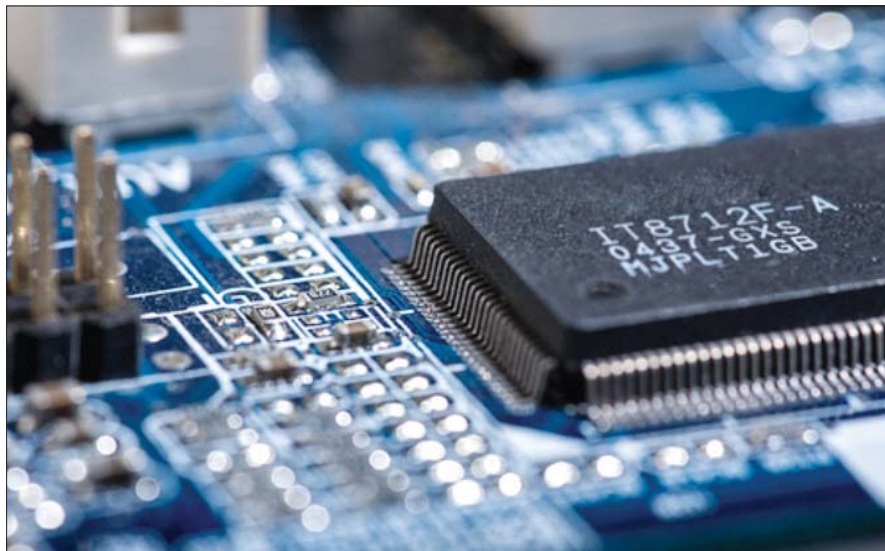
레거시 반도체, 中 집중 우려… “공급망 안정화 전략 필요”

산업부,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美 제재로 中 첨단 반도체 접근 차단
향후 레거시 반도체 中 비중 1/3 예상
美, 자국 내 설비 확충… 보조금 지급
日, 국적·첨단·범용 여부 불분 지원

중국이 미국의 첨단 반도체 제재를 피해 범용 레거시 반도체 확장 전략에 나서면서 반도체 공급망 우려가 나오고 있다. 주요국들도 이에 대응하는 만큼, 우리 정부도 레거시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간하는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최근호(8월1일자)에 따르면, 최근 중국이 미국의 첨단 반도체 제재를 피해 레거시 분야에서 막대한 투자를 이어가면서 향후 레거시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3분의 1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레거시 반도체(Legacy Semiconductor)란 통상 28나노미터(nm) 이상의 공정으로 생산된 반도체로 첨단반도체와 대조되는 구형의 범용 반도체를 말



/유투이미지

한다. 자동차, 항공, 가전, 통신, 전자기기,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된다.

중국은 미국의 제재로 첨단 반도체 장비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자 막대한 투자를 통해 레거시 분야 우위를 점하는 방향으로 반도체 전략을 확대하고 있다. 가트너에 따르면 2027년 글로벌 레거시 반도체 설비에서 중국의 비중은 3분의 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반도체 산업에서의 경쟁력은 기술 수준이 높은 첨단 반도체 분야에 방점을 뒀으나, 코로나19 당시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가 전 세계 자동차 산업에 타격을 미치면서 레거시 반도체를 비롯한 범용 부품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실제로 펜데믹 당시 레거시 반도체 수급 문제로 자동차 인도가 크게 지연되며 전 세계 자동차 공급망에 타격을

주자 공급망 안정 차원에서 범용 부품의 중요성이 커진 바 있다. 특히 전력반도체 등의 레거시 반도체는 미사일, 레이더 등 필수 군사장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국가안보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레거시 반도체는 또 전 세계 반도체 매출에서 여전히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반도체업계의 중요한 수익 기반 중 하나이기도 하다.

주요국들도 자국내 레거시 반도체 지원에 나선 상태다. 미국은 자국 내 설비 확충을 위해 ‘반도체와 과학법’에 근거해 레거시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미 정부의 보조금 지급 대상은 인텔, TSMC, 삼성전자 뿐 아니라 BAE시스템즈,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등 레거시 반도체 기업도 포함된다.

일본은 국적과 첨단·범용 여부를 불문하고 반도체 설비투자의 3분의 1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EU(유럽연합)은 ‘EU 반도체법’을 발표해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자동차용 반도체 중심 투자 확대를 추진 중이다.

인텔과 TSMC 등은 독일에 관련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면서 미-중 레거시 반도체 경쟁도 가열되고 있다. 특히 레거시 반도체 무기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며, 미국의 대중국 규제조치가 레거시 분야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 상무부는 올해 1월 중국의 레거시 반도체 보조금 지급과 덤핑을 지적하며 미국 내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 관련 공급망 조사를 개시한 바 있다. 4월에는 중국에 집중된 레거시 반도체 공급망 문제 해결을 위해 EU, 일본 등 동맹국과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관계자는 “레거시 반도체는 첨단 반도체와 달리 부가가치가 낮고, 중국의 대규모 투자로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국내 개별 기업 차원의 설비확충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레거시 반도체 육성과 안정적인 해외 조달선 확보 등 공급망 안정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농축수산물 물가 둔화… 안심하긴 일러”

농축산물 수급 상황검·대응방안 회의
농식품부, 장관 주재 재해대응 등 점검
생육관리·상생협의체 통해 지속 관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은 농축산물 물가가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면서도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축산물 수급 상황점검 및 대응방안 회의’를 주재하고 “추석 명절이 다음 달로 다가왔다. 농식품부 공무원과 관계기관 임직원 모두가 물가 안정을 위해 조금만 더 힘내주기를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농축산물 소비자 물가가 둔화되고 있으나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추석 성수품 수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성수품 확보 계획 수립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물가안정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장관 주재로 지역별 재



는 계획이다.

수급 상황점검 회의에서는 여름철 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배추 등 채소류 수급상황 및 폭염 등 재해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채소류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가 역대 최대로 확보한 무·배추 가용물량 2만8000톤(무 5000톤, 배추 2만3000톤)을 방출하고 있다. 물량이 부족할 시 최대 일 300톤까지 방출량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소비자가격 안정을 위해 지난달 말부터 대형마트에 직공급도 추진하고 있다. 필요시 추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상추와 깻잎은 복구 및 재정성(모종 다시 심기)을 진행하고 있다. 이달 중순

해 대응, 수급 및 생육 상황 등을 매일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차관 중심의 현장 소통 및 대국민 홍보도 강화한다

좁 공급량이 회복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전망했다. 수박은 8월 중하순께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며, 복숭아·포도 등 공급이 안정적인 대체 과일의 할인 판매를 통해 소비자 부담 완화에 나서기로 했다.

향후 폭염 및 태풍 등의 여름철 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한 생육관리, 폭염 취약시설 현장 점검, 폭염 대응 요령 문자메시지(SMS) 안내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

가공식품과 외식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안정 기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에 나선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논의를 위한 상생 방안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또 도입 조건이 완화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제도과 관련한 외식업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외식협회 등과 함께 사전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농식품부, 음식점 사업주에 ‘外人 고용’ 교육

한식서 중식, 일식으로 범위 확대

농림축산식품부가 4일 외국인근로자(E-9 비자) 고용을 희망하는 음식점 사업주를 대상으로 동영상 교육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음식점 사업주가 외국인 권익보호에 대한 이해를 갖춘 후 고용허가를 신청·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동영상에는 고용허가제에 대한 이해 및 신청 방법을 비롯해 산업재해 예방 요령, 노동관계 법령 및 외국인고용법령 등이 담겼다.

농식품부가 직접 교육동영상을 감수 및 제작해 3개 외식협회에 제공한다. 사업주는 이달부터 각 협회 교육사이트를 통해 교육을 신청하고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한국식품산업협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올해 시범사업 중인 ‘음식점업 고용

허가제’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지난 7월 19일부로 종전 한식에서 중식, 일식 등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또 기존 100개 지역 제한을 풀어 전국으로 넓혔으며,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업력이 5년 이상이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외국인근로자(E-9)를 주방보조원으로 고용하고자 하는 음식점업 사업주는 이달 5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3회차 고용허가 신청부터 변경된 신청 요건에 따라 더 많은 음식점에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며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사전 교육을 무료로 제공한다. 꼭 수강해 고용허가 신청과 외국인 고용관리에 도움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국립환경과학원, 폐기물공정시험 기준 개정

항목 불일치 사항 조정·용어 명확화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폐기물의 성질 및 오염물질의 측정·분석 기준이 되는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은 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분석 기준이다. 폐기물의 성상 및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데 정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공정시험기준 수

자(관련 산업계, 분석기관 등)들의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기준 ▲시료의 채취 ▲시약 및 용액 등 3개 항목에 대해 관련법령과의 불일치 사항을 조정하고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및 설명을 명확하게 개선했다.

우선, ‘지정폐기물의 함유된 유해물질의 기준’ 항목에서는 공정시험기준과 관련법령간 차이가 있었던 항목(크롬 산화물, 석면 추가)을 개정했다.

‘시료의 채취’ 항목에서는 구획법, 교

호산법, 원추 4분법에 대한 그림 및 설명을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시약 및 용액’의 경우 표준시약 사용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고 과광간산칼륨 등 중복 용어를 정리했다.

앞서, 국립환경과학원은 폐기물의 유해특성으로부터 야기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021년 이후 3차례에 걸쳐 총 20개 세부항목의 공정시험기준을 제·개정 한 바 있다. 국내외 최신 분석 방법 조사와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폭발성, 시안, 다환방향족탄화수소, 휘발성 저급염소화 탄화수소류(2종) 등 5개 항목에 대한 공정시험기준을 신설했다. /김대환 기자 kdh@

새롬어패럴, 하도급대금 지급 불이행

공정위, 법인·대표이사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새롬어패럴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새롬어패럴은 관련 민사소송의 지급판결을 이행했으나, 하도급법상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지급 명령을 불이행한 새롬어패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2021년 9월 새롬어패럴에게 가을 블라우스 4종 세트와 구스

다운 점퍼 제조위탁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5억8200여만원과 이에 대한 하도급법상 지연이자 3억6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에 앞서 새롬어패럴은 상계 후 남은 하도급대금과 민사상 지연손해금 변제 공탁을 통해 하도급대금 전부와 지연이자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했다.

그러나 남은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1억79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 일부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 후 이행동작 공문을 2차례 수령했음에도 지연이자 지급을 완료하지 않았다. /세종=한용수 기자

파리서 즐기는 한강라면... K-식품, 세계 관람객 사로잡아

식품기업, 올림픽 마케팅 활발
CJ제일제당 '비비고 시장' 운영
오비맥주 '카스 포장마차' 선보여
농심 신라면 테마 팝업스토어

2024 파리올림픽이 한창인 가운데, 프랑스 현지에서 'K-푸드·컬처' 전도사로 나선 국내 식품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국내 식품기업들은 '팀 코리아'에 음식을 지원하는 한편, 파리 올림픽 코리아하우스(이하 코리아하우스)에서 한국 문화와 한식을 알리고 있다.

CJ그룹이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한 코리아하우스는 파리 7구 '메종 드 라 쉬미(화학회관)'에 만들어졌으며, 오는 11일까지 국가대표 선수단 지원과 함께 K-컬처와 K-푸드 등을 알리는 국가



프랑스 파리 코리아하우스에 조성한 한국식 포장마차 '카스 포차' /오비맥주



'퀴진케이' 영세프 6인이 파리 올림픽 코리아하우스 개관식 만찬서 직접 개발한 18가지 한식 메뉴를 선보였다. /CJ제일제당

홍보관 역할을 한다.

CJ제일제당은 이달 초 대한체육회, 한식진흥원과 함께 '2024 파리 올림픽 계기 한식 진흥과 해외 확산·홍보'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코리아하우스에서 비비고 제품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비비고 시장'을 운영 중이다.

약 230㎡ 규모의 야외정원에 한국식 시장을 모티프로 부스를 설치하고, 비비고 김치와 떡볶이를 김치만두·치킨만두·소불고기만두·불고기주먹밥·핫도그와 각각 곁들인 콤보 메뉴 5종을 방문객들에게 판매한다.

특히, 떡볶이와 핫도그 등 '비비고 K-스트리트 푸드'는 유럽에 아직 출시하

지 않은 품목으로 현지 고객들에게 호기심을 끌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앞서 한식 셰프 육성 프로젝트 '퀴진케이(Cuisine, K)'를 통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개관식 만찬 행사에서 '한류의 향연, 파리에서 만나다'라는 주제로 개발한 한식 메뉴를 귀빈 150명에게 선보이기도 했다.

파리올림픽 공식 맥주 파트너사인 오비맥주는 코리아하우스에서 한국의 주류 문화를 테마로 '카스 포차'를 운영 중이다. 서울 '힙지로(힙한 을지로)' 및 종로 골목거리의 포장마차를 그대로 옮겼다.

특히 네온사인, 한글 간판, 포스터 등



농심이 오는 12일까지 프랑스 주요 거점에 위치한 5개 까르푸 매장에서 '신라면'을 테마로 한 팝업스토어를 운영 중이다. /농심

의 소품을 활용하고, 실제 포차 거리를 촬영한 영상을 부스 안에서 상영해 한국 포장마차 거리의 분위기를 더욱 생생하게 자아낸다. 방문객에게는 CJ제일제당의 글로벌 한식 브랜드 비비고와 협업한 콤보 메뉴도 판매해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카스와 한식의 환상적 조합을 만날 수 있도록 했다.

농심은 오는 12일까지 에펠탑, 스포츠 경기장 등 주요 거점에 위치한 5개 까르푸 매장에서 '신라면'을 테마로 한 팝업스토어를 운영 중이다. 오는 12일까지 에펠탑, 스포츠 경기장 등 주요 거점에 위치한 5개 까르푸 매장에서 서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전세계 관광객들

과 현지인들에게 신라면을 알리고, 유럽 시장 공략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즉석조리 한강라면 시식행사부터 신라면과 짜파게티 등 주요 제품 할인판매, 할인 쿠폰 증정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현지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팀 코리아의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해 빵의 본고장인 프랑스 파리 현지에 위치한 파리바게뜨 5개 매장에서 직접 만든 베이커리 제품 약 3만여 개를 현지 선수단 훈련캠프와 코리아하우스에 후원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롯데백 "추석선물, 반값에 준비하세요"

9일부터 25일까지 예약 판매
220여 품목 최대 50% 할인

롯데백화점이 오는 9일부터 25일까지 17일 간 백화점 전 점포에서 '추석 선물 예약 판매'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전 예약 판매는 총 220여 품목을 정상이 대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상품군별로 축산, 과일, 수산 등 신선식품 70여 종과 건강식품 60여 종, 주류 30여 종, 가공식품 60여 종 등을 준비했다.

올해는 고물가에 예약 판매 수요가 더 몰릴 것으로 예상해 전년 대비 전체 물량을 약 20% 늘렸다. 먼저, 축산과 수산 선물 세트를 프리미엄부터 실속 세트까지 다양하게 선보인다. 대표 상품으

로는 스테이크를 가장 맛있게 즐길 수 있는 1+등급의 4가지 고급 부위로 구성된 '한우특선 스테이크 기프트(43만 2000원)'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증한 농가에서 생산된 친환경 저탄소 한우로 구성된 '저탄소 한우 명품 기프트(43만 2000원)', 가슴비를 고려한 '한우 소화행 로얄 기프트(20만원)' 등이다.

수산 선물세트로는 전통적인 명절 선물로 꼽히는 '영광 법성포 굴비 기프트 월(月)(21만원)', '완도 활전복 행복 기프트(12만원)' 등을 특별한 가격에 만나 볼 수 있다.

청과 선물 세트는 산지 및 품종을 다변화해 품질을 높이는 한편 가격대는 낮췄다. 대표 상품으로는 프리미엄 대과로 엄선한 사과, 배와 사인머스켓을 혼합한

'엘프미에 사과·배·사인·애플망고 기프트(16만 2000원)', 추석 과일 기프트 베스트셀러 중 하나인 '레피세리 사과·배 기프트(12만 6000원)' 등이다.

또한 최근 수입과일 중 망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항공 직송 브라질산 망고로 구성된 '레피세리 실속 애플망고 기프트(9만원)'가 소비자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건강 관리에 높아진 관심을 반영해 홍삼, 비타민, 발효식품 등의 상품도 다양하게 준비했다. 명절 선물로 수요가 높은 홍삼 선물세트 '동원 천지인 발효홍삼(7만 8000원)', 뉴질랜드 대표 마누카 꿀 브랜드 오마누카의 '스퀴즈보틀 패키지(7만 9200원)' 등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CU, 차별화 사케 브랜드 '쿠' 론칭

첫 상품 '오니노카나보' 출시

CU가 편의점 업계 최초로 차별화 사케 브랜드 '쿠'를 론칭한다고 4일 밝혔다.

CU가 이번에 선보이는 차별화 사케 브랜드 '쿠'는 CU를 한글 그대로 발음한 이름이며 일본어로 쿠(空/食)는 '빈 공(空)'자로 하늘을 의미함과 동시에 '떡다'라는 속 뜻도 있어, 먹고 마시기 좋은 사케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쿠의 첫 상품은 '오니노카나보'라는 사케다. 해당 제품은 일본의 사케 전문 제조사인 긴반 주조에서 만든 것으로 1인 가구에 맞춘 300ml짜리 소용량으로 기획됐다. 알코올 도수는 13.5%, 가격은 4500원이다. 현재 3명 이상 구매 시 1만 2000원 할인 행사를 진행 중이다.

'오니노카나보'는 도깨비 방망이라



모델이 CU 사케 브랜드 '쿠'를 소개하고 있다. /CU

는 뜻으로 범에게 날개를 달아줬다는 관용구로도 쓰여 이 사케를 마시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거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오니노카나보는 사케의 달고 쓴 정도를 나타내는 일본 주도 상단맛이 적은 +3의 가라구치에 속하며 쌀 특유의 담백한 맛과 풍미, 은은한 산도가 조화로운 술이다. /최빛나 기자

풀무원녹즙, '콩즙' 팝업카페 운영

'마시는 콩즙' 25만병 판매 기념

풀무원이 국산 콩을 통째로 갈아 넣어 원물의 맛과 영양을 그대로 살린 '마시는 콩즙' 2종을 더 많은 소비자가 체험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이벤트를 마련했다.

풀무원녹즙은 '마시는 콩즙' 누적 판매 25만 병 돌파를 기념해 오는 25일까지 다양한 제품을 경험해 보고 프로모션 혜택까지 만나볼 수 있는 콩즙 팝업 카페를 현대백화점 미아점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마시는 콩즙' 팝업 카페는 더 많은 소비자에게 '마시는 콩즙'을 알리고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고객 접점 확대 차원에서 기획했다.

이번 팝업 카페는 신선 배송을 위한 풀무원녹즙의 이동식 냉장 전동카트 '녹크(Knock)'를 활용해 공간을 꾸민 것이 특징이다.

팝업 카페 오픈을 기념해 현대백화점 고객을 대상으로 한 무료 체험 기회와 혜택도 준비했다.

'마시는 콩즙' 팝업 카페를 방문한 고객이 풀무원녹즙 애플리케이션(앱)을 설



풀무원녹즙이 현대백화점 미아점에서 오는 25일까지 다양한 제품을 경험해 보고 프로모션 혜택까지 만나볼 수 있는 콩즙 팝업 카페를 운영한다. /풀무원녹즙

치할 경우 현장에서 콩즙 본품 2종 중 한 병을 증정하며, 동일 기간에 현대백화점 미아점 고객을 대상으로 풀무원녹즙 홈페이지에서 콩즙 주머니 5000원 할인쿠폰도 증정한다. /신원선 기자

남양유업, '이너케어 뼈관절 프로젝트' 출시

건강기능식품 포트폴리오 확대

남양유업은 건강기능식품 포트폴리오 확대를 위해 신제품 '이너케어 뼈관절 프로젝트'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제품은 식약처 인증 기능성 원료와 프로바이오틱스를 정제(알약)·액상 이중제형으로 설계했다. 이 안에는 구절초 추출물, 비타민D, 아연, 셀렌 등 관절 및 연골 건강,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 면역 증진 등에 도움되는 성분이 함유돼 있다.

이와 함께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

제를 위한 프로바이오틱스로 장 건강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중제형으로 발효유 액상을 통해 정제(알약)를 물 없이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

2021년 출시된 남양유업의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이너케어'는 제약회사 녹십자웰빙과 공동연구를 통해 만들었다. 밀크씨슬 추출물을 담은 '간 프로젝트', 그린세라-F(인동덩굴꽃봉오리추출물)로 위장벽을 보호하는 '위 프로젝트', 국내 장수마을에서 분리한 특허 유산균을 함유한 '장 프로젝트' 등의 라인업을 갖췄다. /신원선 기자

미용·피부건강 개선 초점 ... '메디컬 에스테틱' 공략 본격화

제약·바이오, 사업 다각화 경쟁
동국제약 스킨부스터 등 시장 공략
사페론과 면역복합체 억제제 개발
시지바이오 글로벌 수출 국가 확장
홈케어 시장 공략 소비자 편의성 ↑

메디컬 에스테틱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성장세가 눈에 띈다.

4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동국제약은 올해 메디컬 에스테틱 사업을 적극 확장하고 있다.

동국제약은 최근 새로운 메디컬 에스테틱 제품으로 스킨부스터 '디하이브'와 창상피복재 '마데카MD 크림·로션'을 출시했다. 해당 제품들은 피부과, 성형외과 등 병원에서만 처방받을 수 있는데, 동국제약은 미용, 피부 건강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춘 기능성 제품을 개발해 메디컬 에스테틱 시장에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스킨부스터 '디하이브'는 인체지방 세포배양액, 병풍추출물, 락토페린 등의 성분을 활용해 피부의 다양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데 적합한 제품이라는 것이 동국제약 측의 설명이다. '마데카MD 크림·로션'의 경우, 1도 화상이나 건조한 피부 등 피부 장벽



동국제약 스킨부스터 '디하이브'

/동국제약

이 손상된 부위에서 유효한 기능을 갖췄다.

동국제약은 앞서 지난 5월에는 메디컬 에스테틱 시장에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면역신약개발 바이오 기업 사페론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동국제약은 사페론이 연구 중인 면역복합체 억제제를 이용해 만성 염증과 민감성 피부에 쓰이는 제품을 개발하는데 역량을 쏟고 있다. 또 동국제약은 보건 의료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항노화 및 노화 관련 주사용 의료기기도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동국제약은 염증반응이 유발하는 노화를 의미하는 '인플라메이징'에 집중해 해당 시장의 성장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동국제약은 전 세계 인플라메이징 시장 규모는 현재 8739억 원이며, 오는 2030년에는 1조 7167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동국제약은 지난 3월 제이 에스케이와 전략적 협약을 맺고 에스테틱 시장에서 전문가용 미용기기 '마데카더마 파인올샷'을 내놨다. 동국제약에 따르면 '마데카더마 파인올샷'은 저

통증 집중초음파 기술이 적용돼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고 빠른 피부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아울러 동국제약은 13년 만에 필러 제품인 히알루론산 필러 '케이블린'을 출시했다. 동국제약이 독자적인 필러 제조 기술력으로 안전성, 안정성, 조형성, 주입 용이성, 지속력 등을 높였다.

바이오 재생의료 전문기업 시지바이오도 에스테틱 사업에 속도를 내며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시지바이오는 지난 2023년 연결기준으로 매출 1567억 원, 영업이익 204억 원을 달성해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대비 20.8%, 12% 증가한 가운데, 필러 제품군은 전년 대비 127% 증가했다는 것이 시지바이오 측의 설명이다.

특히 시지바이오는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 위주의 수출에서 유럽, 중동, 중남미, 오세아니아 등 전 세계적으로 수출 국가를 확장해 지속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했다.

실제로 시지바이오는 지난 3월 모나코에서 열린 세계 최고 에스테틱·항노화 학회인 'AMWC 2024'에 참여해 글로벌 미용성형 시장 선전에 나섰다. 시지바이오는 해당 행사에서 기업 핵심

제품인 실리프팅 시술용 폴리디옥사논(PDO) 봉합사 렉스, 성장인자를 히알루론산 필러에 접목한 차세대 스킨부스터 제품 등을 선보였다.

시지바이오는 최근 고기능성 스킨부스터 '트루다이브 RX PDRN' 제품군도 출시했다. 이 제품은 국소 부위를 관리하는 패치 제품과 넓은 부위에 사용하는 롤러 제품으로 구성됐다.

해당 제품들은 연어 또는 송어의 생식세포에서 추출한 DNA를 정제한 성분인 폴리디옥사논보뉴클레오티드(PDRN), 작약 엑소솜, 네오랩S 등 고기능성 성분을 주성분으로 해 피부 본연의 에너지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무엇보다 시지바이오는 피부 전문 클리닉에서 받는 고기능성 피부 관리를 집에서 손쉽게 경험하고자 하는 소비자 수요를 정조준한다는 전략이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데이터브릿지에 따르면 국내 에스테틱 시장 규모는 지난 2023년 23억8000만 달러(3조2261억 원)에서 오는 2031년 81억8000만 달러(11조8800억 원)로 연평균 17.3%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스마일게이트 '로드나인' 신규서버 10곳추가 오픈

게임 개발사 '스마일게이트'가 게임 서비스 확장을 위해 신규 서버를 개설한다. 스마일게이트는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인 '로드나인'의 신규 서버를 2일 오픈했다고 4일 밝혔다.

스마일게이트에 따르면 로드나인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게임 플레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신규 월드 '마레크' 및 10개의 서버를 추가로 공개한다.

로드나인은 지난달 12일 출시 이후 누적 다운로드 200만을 기록하고, 최고 동시 접속자 15만명을 기록했다. 이번 신규 서버 증설로 더욱 많은 게임 이용자들이 로드나인을 쾌적하게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스마일게이트 측의 설명이다. /안재선 기자

유한양행, 유산균 '포켓부스터' 론칭

장건강·운동수행력 향상 동시에
높이뛰기 선수 우상혁 모델 선정

유한양행이 운동수행력과 장건강을 동시에 관리해주는 이중 기능성 건강기능식품 '포켓부스터'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유한양행에 따르면, '포켓부스터'는 국내 최초의 운동수행능력 향상 유산균 제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 인정을 받은 개별인정형 원료 '락토바실러스 플라타룸 TWK10'를 주성분으로 한다.

만 20~40세의 성인 남성 60명을 대상으로 한 락토바실러스 플라타룸 TWK10 인체적용시험에서 해당 성분 섭취



포켓부스터.

/유한양행

시 악력 증가, 혈중 젖산 감소, 혈중 암모니아 감소, 탈진 시까지 걸린 시간 증

/이청하 기자

가 등의 효과가 확인됐다는 것이 유한양행 측의 설명이다. 또 유한양행은 '포켓부스터'는 보장균수 100억으로 배변 활동을 비롯한 장건강에도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한양행은 '포켓부스터' 제품 모델로는 한국 육상 역사상 최초의 높이뛰기 메달리스트인 우상혁 선수를 선정했다. 유한양행은 대회마다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로 한국 육상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우상혁 선수가 현대인의 활력을 높이는 포켓부스터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세엠케이 나이키키즈 체험형 매장

기흥점, 약 90평 규모 대형매장
 조던 등 신제품·이월상품 다양

패션 기업 한세엠케이가 아이들을 위한 체험형 매장을 선보인다.

한세엠케이는 롯데프리미엄아울렛 기흥점에 '나이키키즈 바이 플레이키즈'(이하 나이키키즈) 체험형 매장을 새롭게 연다고 4일 밝혔다.

한세엠케이에 따르면 이번 나이키키즈 기흥점은 약 90평 규모의 대형 매장으로, 나이키 및 조던 키즈 라인의 신제품과 이월 상품을 모두 만나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조던 23 저지 세트', '나이키 우븐 반바지' 등 의류를 포함해 나이키와 조던 키즈 제품군의 신발과 액세서리 상품이 준비됐다.

특히 이번 나이키키즈 매장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체험 매장으로 기획됐다는 게 특징이다. 매장을 방문한 아이들은 오래 매달리기, 높이 뛰기, 제자리 뛰기 등 활동을 즐길 수 있다.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직접 다양한 운동을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했다는 것이 한세엠케이 측의 설명이다.

할인 행사도 마련됐다. 매장 방문객은 내달 18일까지 매장에서 2개 품목 구매 시 10%, 3개 이상 구매 시 15%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선착순 구매 고객 대상으로 나이키키즈 양말, 카드 지갑 등도 사은품으로 증정된다.

한세엠케이 관계자는 "나이키키즈 매장에 고객들의 뜨거운 호응 덕분에 유의미한 성과를 기록하며 성장세를 기록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한미약품, 의약품 처방약 매출 3년 연속 1위 CJ올리브영, 인천공항-명동 직통버스 운영

지난해 합산 매출 1조168억 달성

한미약품은 제약 업계에서 3년 연속 '원내·원의 처방 합산 매출' 1위라는 기록을 세워 나가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와 아이큐비아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미약품은 지난 2023년 원내·원의 처방 합산 매출 1조168억 원을 달성했다. 지난 2021년 원내·원의 처방 매출 8405억 원을 기록한 후, 3년간 원내·원의 처방 의약품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는 것이 한미약품 측의 설명이다.

원의 처방은 병의원이 처방한 의약품은 약국에서 조제한 것이고, 원내 처

방은 병원 내 약제과에서 조제해 환자에게 투여하는 의약품을 뜻한다.

이와 관련 한미약품은 원내·원의 처방 매출이 한미약품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인 만큼, 회사는 치료제 개발을 중심으로 한 제약 사업 본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약품에 따르면, 이상지질혈증 치료 복합신약 '로수젯'은 올해 상반기에만 1000억원의 처방 매출을 돌파했다.

또 고혈압치료제군 '아모잘탄패밀리'의 올해 누적 처방 매출은 1조3400여 억 원에 이른다. 아모잘탄패밀리의 시초가 된 2제 복합신약 '아모잘탄' 누적 매출도 1조 원을 넘어섰다. /이청하 기자

외국인 대상 무료 '올영 익스프레스'

CJ올리브영이 K뷰티와 K쇼핑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강화한다.

CJ올리브영은 오는 2025년 1월 31일까지 6개월간 외국인을 대상으로 '올영 익스프레스'를 시범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올영 익스프레스는 인천 공항에서 서울 명동까지 하루 3회 편도로 운행하는 무료 버스다.

올리브영에 따르면 해당 버스는 'K 공항리무진'에서 운행하는 6701 노선을 활용하고, 올리브영 특정 매장 앞이 아닌 명동 입구에서 하차해 명동 상권 전반의 접근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인천공항과 명동을 잇는 올리브영 전용 버스 '올영 익스프레스'에 탑승하고 있다. /CJ올리브영

올리브영은 외국인 관광객이 올영 익스프레스를 통해 K뷰티를 체험하고 국내 대표 관광 명소인 명동에서 다양한 K문화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알뜰폰 + 기가WiFi 인터넷 + UHD TV 결합 혜택

통신비 다이어트

지금 받고 있는 혜택에 만족하세요?
바로 비교해봐도 **70만원 손해!**



LG헬로비전 기가라이트500Mb + UHD뉴베이직 TV + 7기가 모바일 무제한 요금제 결합
K사 베이직500Mb 인터넷 + 266채널 동급 TV + 5기가 모바일 무제한 요금제 결합
※인터넷/TV 36개월 약정 기준 ※VAT포함, STB임대료 별도

LG헬로비전 상담문의
1855-1094



구글-서울시, DDP서 '새싹 잡 페스티벌' 공동 개최
 구글과 서울시가 지난 2일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에서 '2024 새싹(SeSAC) 잡 페스티벌'을 공동 개최했다. 새싹 잡 페스티벌은 인공지능(AI) 관련 취업 정보와 미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행사다. 사진은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페스티벌에서 축하하고 있는 모습. /구글



한국벤처투자, 사내봉사단 3기 활동 본격화
 한국벤처투자(KVIC)가 사내 봉사단 'KVIC Together' 3기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사회공헌 활동에 돌입했다. 4일 KVIC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발대식을 갖고 올해 첫 번째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봉사단은 서초구 자원봉사센터와 협업체를 무더위로 고동하는 이웃을 돕기 위한 '쿨키트'를 제작하고, 이들이 보다 쾌적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다. /한국벤처투자



고려대, 국내최대 규모 '국제하게대학 수료식'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가 1일 오후 6시 30분 인촌기념관 대강당에서 '2024학년도 국제하게대학(International Summer Campus, 이하 ISC)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국내 최대 규모로 열린 '2024 고려대 국제하게대학'에는 약 200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고려대



유진그룹, 직원 건강관리 프로그램 캠페인 펼쳐
 유진그룹 계열 동양이 직원 건강관리를 위한 캠페인을 펼친다. 4일 유진그룹에 따르면 동양에서 마련한 직원 건강관리 프로그램은 '내 몸 UP, 성인병 down' 챌린지로 올해 2월 시작한 'T-CARE(TONGYANG Health Care : 동양 헬스케어)'의 시즌2 캠페인이다. 23일까지 예정된 시즌2에서는 'T-CARE' 건강챌린지 '인바디 챌린지'를 펼친다. /유진그룹



시몬스, 이천 경로당·마을회관에 매트리스 기부
 시몬스가 경기 이천 지역사회를 위해 자사 매트리스를 기부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시 한번 실천했다. 시몬스는 이천 지역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총 1억원 상당의 매트리스를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시몬스

LG전자, 캄보디아 청소년에 전자·전기·ICT 교육 제공

LG-KOICA 희망직업훈련학교
 지난해까지 300여명 졸업생 배출
 교실 리모델링·교육 기자재 제공 등
 전 세계 청소년들 자립 위해 노력

LG전자의 글로벌 청소년자립 지원 활동이 결실을 맺고 있다. LG전자가 지난 30일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서 '캄보디아 LG-KOICA 희망직업훈련학교' (이하 희망직업훈련학교)의 졸업식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

희망직업훈련학교는 LG가 한국 국제협력단(KOICA)과 협력해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등에 설립한 기술 교육 기관이다.

캄보디아에서는 지난 2021년부터 프놈펜, 바탐방 등에 위치한 직업훈련학교 3곳에서 전자·전기·ICT 관련 전문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300명이 넘는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졸업생 대다수가 유관 분야로 진학 및 취·창업했다.



지난달 30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캄보디아 LG-KOICA 희망직업훈련학교' 졸업식에서 재학생들이 졸업생들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내는 모습. /LG전자

LG전자는 '희망직업훈련학교' 학생들이 각자 역량 개발에 집중하도록 ▲교실 리모델링 및 교육 기자재 제공 ▲우수 및 취약계층 학생 장학금 지급 ▲감사 역량 강화 교육 등

후지 스피드웨이서 1년간 리드 차량
 현대자동차의 일본 공략의 핵심 모델 아이오닉 5가 현지 모터스포츠 분야에서 경쟁력을 인정 받았다.

아이오닉 5 N, H 서킷 공식차량 선정

후지 스피드웨이서 1년간 리드 차량

현대자동차의 일본 공략의 핵심 모델 아이오닉 5가 현지 모터스포츠 분야에서 경쟁력을 인정 받았다.

4일 현대차에 따르면 아이오닉 5 N이 EV 차량 최초로 일본 후지 스피드웨이 서킷 공식 차량으로 선정되었다. 후지 스피드웨이는 일본 시즈오카현에 위치해 있으며 F1 등 국제 모터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는 서킷이다. 길이는 4.56km에 달하며 16개 코너를 구비한 점이 특징이다.

서킷 공식 차량으로 선정된 아이오닉 5 N은 올해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 1년간 서킷에서 리드 차량으로 사용된다. 또 후지 스피드웨이 주최 이벤트 선두 주행, 서킷 방문 고객을 위한 레이싱 택시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SGI서울보증, 김대남 상근감사위원 선임

오늘부터 3년간 임기 시작

SGI서울보증은 지난 2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선임 상근감사위원으로 김대남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사진)를 선임했다고 4일 밝혔다.

김대남 신임 상근감사위원은 1966년생으로 강릉고, 연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캐롤라인대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인사

◆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감사담당관 오태웅 △혁신행정담당관 김동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경선 △국제협력담당관 장현석 △고용문화개선정책과장 박정현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 최영범 △기업훈련지원과장 이우영 △노사협력정책과장 박은경 △노사관계지원과장 김재훈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 배영일 △울산지청장 김범석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이번 졸업식에 참석한 전자 분야 졸업생 썬썬씨는 "전자 분야는 전통적으로 남학생들의 선호가 높고 여학생들이 진출하기 쉽지 않은 분야였다"면서 "희망직업훈련학교에서 전자 분야 기술과 전문성을 갖추고, 성별의 제약 없이 냉동설비 기업에 취업해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대식 LG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는 "삶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로 답대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Life's Good'의 진정성을 알려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세계 곳곳의 청소년들이 각자의 꿈을 키우며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삼성스토어 홍대에 위치한 '갤럭시 스튜디오'에 공방 컨셉으로 꾸며진 체험공간 전경. /삼성전자

'갤럭시 스튜디오' 방문객 30만명 돌파

삼성전자, 7월부터 운영
 갤럭시 신제품 모두 체험 가능
 SNS 후기 추천 이벤트 진행 중

삼성전자가 7월부터 운영해 온 '갤럭시 스튜디오' 누적 방문객이 30만명을 돌파했다고 4일 밝혔다.

갤럭시 스튜디오는 최초의 AI(인공지능) 폴더블폰인 '갤럭시 Z 폴드6', '갤럭시 Z 플립6'와 더불어 '갤럭시 워치 울트라', '갤럭시 워치7', '갤럭시 링', '갤럭시 버즈3 시리즈'의 갤럭시 신제품을 모두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더현대 서울', '삼성스토어 홍대'에 있는 갤럭시 스튜디오는 8월 11일까지 운영한다. 여름 휴가철에 맞춰 공방 컨셉으로 꾸며진 체험공간이 관심을 끌고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스튜디오에서 신제품을 체험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후기를 남기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추천을 통해 ▲갤럭시 Z 폴드6 ▲갤럭시 Z 플립6 ▲갤럭시 워치7 등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벌이고 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

빙그레, 독립운동가 한복차림으로 재현

국가보훈부와 '처음 입는 광복' 캠페인

빙그레가 국가보훈부와 함께 독립운동 캠페인 '처음 입는 광복'을 시행한다.

'처음 입는 광복'은 옥중에서 순국해 빛바랜 죄수복으로 남은 독립운동가 87명의 마지막 사진을 인공

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독립운동의 정신을 담은 빛나는 한복을 입은 모습으로 바꿔 새로운 영웅의 모습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캠페인이다. 복원된 사진 속 87명의 독립운동가는 공훈전자사료관 내에 옥중 순국 기록이 있는 독립운동가 중 일제감시대상 인물카드에 수형 사진이 마지막 모습으로 남은 인물들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AI 기술로 복원한 독립운동가의 사진에 김혜순

한복 전문가와 협업한 실제 제작 한복을 영상기술로 입혀 재현했다.

빙그레는 생존 애국지사 6명에게 감사패와 함께 캠페인을 위해 제작된 특별한 한복을 증정할 예정이다. 독립운동의 의미와 상징성을 한복 옷감의 색과 주요 염료로 표현하여 캠페인의 의미를 더했다.

또한 빙그레는 독립운동가의 복원된 사진을 실은 온라인 사진전도 개최한다. 옥중 순국한 87명 독립운동가의 복원 전·후 사진과 인물별 공훈이 정리되어 있으며,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되어 있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과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서대문·독립문·광화문·동작 등 주요 지하철역바닥면에는 실제 옥사와 같은 크기로 제작한 옥의 광고도 설치된다.

/신원식 기자 tree6834@



다. 현진도시개발 대표이사,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 등을 역임했다.

김 감사위원은 오늘부터 3년간의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김주형 기자 gh471@

◆ **대전 중구** ▷5급 전보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부고

▲ **심일섭씨** 별세, 심승식 JW중외제약병원1사업부장 부친상 = 2024년 8월 4일 오전 3시 47분, 빈소 곡성우리장례식장VIP실(전남 곡성군 옥곡면 울사리 292-15번지), 발인 8월 6일 오전 9시, 장지 곡성 선영

이자카야 나무의 여름휴가 응원!



1억 원 1천명 경품 이벤트



2등



2024.
7.15.~8.31.

이자카야 나무에서
샤넬 핸드백, 샤넬 클러치백, 4인 골프 라운딩 (그린피+카트비) 6명 등
1천 명에게 1억 원의 선물을 드립니다!

기간

2024. 7. 15. ~8. 31. (1.5개월)

대상

이벤트 기간 내 저녁 방문 모든 고객 (점심 고객 제외)
테이블 수에 맞춰서 스크래치 복권 1매 제공 및 응모
금액 결제 시, 복권 제공

참여 방법

광고 없는 스크래치 복권 (기간 내 중복응모 가능)

이벤트 발표 및 경품 지급

15개 지점 현장
샤넬 핸드백, 샤넬 클러치백, 골프 라운딩(4인 그린피+카트비) 등

Tel: 02-511-6787 / E-mail: namu19817@naver.com

www.namulove.co.kr

경품 내용

- 1등 샤넬 클래식 핸드백(11.12 클래식 핸드백) x 1명
(1,800만 원 상당)
- 2등 샤넬 클러치백(클래식 클러치 미디움 은장) x 3명
(750만 원 상당)
- 3등 4인 골프 라운드권 x 6명
(900만 원 상당)
- 4등 10만 원 식사권 x 192명 (약 1,900만 원 상당)
식사권은 다음 방문 시 사용 가능
- 5등 쿠보타센쥬 사케(96,000원) x 240명
(약 2,300만 원 상당)
- 6등 5만 원 식사권 x 576명 (약 2,880만 원 상당),
식사권은 다음 방문 시 사용 가능
- 7등 참여자 전원 생맥주 두 잔씩(복권 한 장 당 생맥주 2잔)
다음 방문 시 사용 가능

‘GPS 드로잉’, 저작물로 보호 가능할까?



박 상 오 변호사의 콘텐츠 법률 산책

‘콘텐츠’는 사회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끊임없이 진화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발달과 유튜브와 같은 콘텐츠 공유 플랫폼의 등장, 최근에는 인공지능(AI)에 의한 창작까지. 시대의 변화는 언제나 새로운 콘텐츠의 등장이나, 콘텐츠 창작 또는 제공 방식의 변화로 이어져 왔다.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활용해 특정인의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사람이 직접 이동하는 방식으로 특정한 형태의 이동경로를 만들어 내는 것을 ‘GPS 드로잉’이라고 하는데, 이 역시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콘텐츠의 한 형태이다. GPS 드로잉’은 그 이동경로를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이미지)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직접 펜의 역할을 하면서 이동해 결과물을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일종의 행위예술이라고 볼 수도 있다. GPS 드로잉은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봐 저작권 재산권 등을 인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필자의 사건으로는 GPS 드로잉은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방법(즉, 시각화)의 하나(즉, 도구의 하나)에 불과하므로 해당 이미지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이는 이동경로 기록을 통해 시각화된 이미지 등에 관한 것으로 이동경로를 기록한 데이터 파일(GPX 파일)을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복잡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강아지런(Gang-aji Run)’이라는 GPS 드로잉의 저작권 등록 사례가 화제다. 창작자는 위 작품을 미술 저작물이나 도형저작물로 등록하고자 했으나,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를 반려하거나 부정적인 의견을 회신했다. 최종적으로 위 작품의 데이터 파일에 관해 ‘편집저

작물’로 저작권 등록이 이뤄질 수 있다고 한다. 참고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창작자가 위 작품의 시각화된 이미지가 위 편집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해당 사례에서 창작자나 그 대리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시각화된 이미지, 데이터 파일 등)을 대상으로 저작권 등록을 신청했는지, 어떤 내용으로 저작권 등록을 신청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GPS 드로잉이 편집저작물로 인정된 것만 하더라도 앞으로의 콘텐츠 업계에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종래와 같이 인간에 의해서가 아닌 기계 또는 프로그램, 정보나 데이터 등에 기초해 새로운 형태의 창작이 끊임없이 등장할 것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새로운 콘텐츠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권리를 보호할 것인지 등에 관해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가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고 할 것이다. /법무법인 바른

‘티메프 사태’, 시스템 문제가 맞다



기지 수집 허 정 윤 (자본시장부)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이 안 됐네요. 전산 시스템 오류라고 하는데 단순해 프닝이겠지요?”

지난 7월 9일 티메프 판매자들이 모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이에 티메프는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따른 전산 오류로 12일까지 판매대금 정산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확산에 찬답을 내놨다.

그리고 지금, 해프닝이길 바랐던 ‘시스템 문제’ 사건은 ‘티메프 사태’로 번졌다. 비판의 화살은 먼저 구영배 큐텐 대표에게 날아갔지만, 이를 미연에 막지 못한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국회·정부로도 향했다. 특히 이번 사태가 조짐도 없이 터진 문제가 아니기에 당국을 향한 비판은 거세다. 티몬은 금감원과 지난 2022년 6월 1차

경영개선협약(MOU) 당시 ‘유동성 비율’ 개선 계획 수치를 2022년 말에는 51% 이상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했다. 유동성 비율은 단기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간주된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말 맺은 2차 협약을 통해 ‘사업자의 노력 의무’ 내용도 추가했다. 티몬이 직접 미상환·미정산잔액의 보호조치를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노력할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티메프가 제출한 이행계획에는 신규 투자유치 시 최대 1000억원 및 투자금의 20%를 별도 예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티몬은 올해 3월 말 유동성 비율 개선 계획치를 10%로 낮춰 제출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렇게 MOU 내용 중 그 무엇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감독당국은 ‘등록업체’에 대한 ‘강제적 조치 수단’이 없어 막지 못했다고 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전자금융업자의 건전성·유동성이 악화하면 은행·보험사·카드사 같은 ‘인허가업체’에 한해 전자금

융감독규정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을 내릴 수 있다. 티메프처럼 ‘등록업체’에 대한 규제는 MOU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금융당국은 이제야 PG사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어떻게 강화할지 검토 중이다. 아울러 국회도 전금융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사후약방문 같은 이야기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이커머스 시장의 거래액은 2010년 약 19조원에서 2019년 코로나19대 확산에 따라 106조원으로 성장하더니, 지난해 210조원에 달했다. 빠르게 성장하는 이커머스 시장과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까지 인지했음에도 당국과 국회가 법개정을 제안하거나 공론화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다.

이커머스와 관련된 모든 기관은 이번 사태 해결을 비롯해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 시스템’을 책임감 있게 구축해야 할 것이다. /zelkova@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8월 5일 (금 7월 2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소 표 날이니 외출할 일이 발생. **48년생** 결과가 좋으니 모든 것이 편하다. **60년생** 상대는 호의가 계속되면 당연한 권리로 착각. **72년생** 당당하게 믿음과 지고 일을 추진. **84년생** 강한 것을 견디려면 자신이 다칠 수가 있으니.
- 37년생** 망해버린 나라의 옥새를 끌어안고 있어 본들. **49년생** 공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61년생** 성공이 끝이 아니니 교만하지 마라. **73년생**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성과가 좋다. **85년생** 오늘은 집안에 격정할 일이 없어 편안.
- 38년생** 앞만 보고 달리니 시야가 좁다. **50년생** 가지 못한 길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62년생** 물이 너무 맑아도 고기가 살지 못한다는 것을. **74년생** 발을 두려워하면 좋은 꼴을 얻지 못한다. **86년생** 부모님의 삶도 고단하다는 것을 알아라.
- 39년생** 현실은 쓴맛 단맛 다 보는 일. **51년생** 성공을 위해 애쓰지만 신용은 최선. **63년생** 세월은 흐르게 되어 있으니 기다려라. **75년생** 무더위가 가면 그는 덕을 잇는 법이니 마음을 비워라. **87년생** 기대를 접으니 오히려 마음이 한결 편안.
- 40년생** 마른논에 물들어 옷들이 일이 잘 해결. **52년생** 좋은 것을 포기하고 마음이 울적. **64년생**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켜라. **76년생** 부모님의 건강과 안부를 챙겨야 복 받는다. **88년생** 욕심이 과하다 모두 가질 수 없으니 하나는 양보.
- 41년생** 이제라도 기초를 세워야 후회하지 않는다. **53년생** 부러움을 많이 사는 날이나 실속은 적다. **65년생** 푸른색은 쪽에서 나왔으나 쪽빛보다 푸르다. **77년생** 누구라도 시련 없이 성공할 수 없다. **89년생** 금전 문제로 이득이니 계약 성사.
- 42년생** 익숙한 일도 실수를 하게 된다. **54년생** 가정은 전쟁터이지만 밖은 지옥이니 투자는 신중. **66년생** 위기의 탈출은 남은 비상금을 활용하여. **78년생** 불평을 밖으로 내뱉기보다는 관망을. **90년생** 실패에 대한 공포를 떨치는 데는 신념이다.
- 43년생** 상냥한 말에 넘어가지 말고 중심을 가져라. **55년생** 최선을 다하니 좋은 기회가 주어진다. **67년생** 근거 없는 소문에 휩싸이지 마라. **79년생** 좋은 기회이니 꺾질물 깨뜨리고 밖으로 나가라. **91년생** 양보가 비굴하다는 생각은 접도록해야.
- 44년생** 두드러지도 않고서 포기하지 마라. **56년생** 가는 사람도 잡아야 할 때가 있다. **68년생** 최소한 한 가지 일에는 능통하게 기술실력을 쌓아. **80년생** 부모님의 지원이 부담이 많이 되니 받아라. **92년생** 태양이 떠 있는 한 꿈을 버리지 마라.
- 45년생** 앞만 달리는 이가 속 빠지는 날이다. **57년생** 생각을 바꾸면 의외의 곳에서 답이 보인다. **69년생** 가야 할 길은 멀고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는다. **81년생** 마음을 비우니 일이 많아지면서 신명이 난다. **93년생** 고인이 많으니 해결책의 귀인이 온다.
- 46년생** 초조해하지 말고 차분히 기다려라. **58년생** 판단력이 흐려지면 서류를 잘 살펴라. **70년생** 씨를 뿌려야 수확을 하듯이 노력이 먼저. **82년생** 우물에서 송충 찾지 말고 매사에 순서대로 시작. **94년생** 오랜만에 머리가 맑고 기분이 상쾌한 날.
- 47년생** 암탉이 우는 것은 새벽을 알리는 것으로 온다. **59년생** 어항 속 물고기처럼 변화 없는 하루. **71년생** 오늘은 새것이 생겨서 기쁘고 즐겁다. **83년생** 현명한 사람은 미래를 배우며 산다. **95년생** 돼지띠라 그런지 푸바오가 안타깝기만 하다.



김상회의四季

풍수의 대가는 어디에

풍수에 관해 전설 같은 얘기들이 많이 전해져 내려온다. 우주선을 쓰고 광활한 우주여행을 하는 시대가 되었어도 지구는 지구의 법칙이 있는 지라 지수화풍 4대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은 주거지 등의 양택뿐만 아니라 죽어서 묻히는 음택인 땅의 기운과 형상을 무시도 중하게 여겼던 터다. 동물들이나 초목들도 땅의 특성과 에너지에 기대어 자라는 속도나 성분 거주하는 곳도 달라지니 풍수는 반드시 인간들만의 전유물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풍수와 관련하여 전문가는 단연 풍수가이자 지관地官들이 될 것이다.

조선시대 때에는 왕실의 묘터 등을 관장하던 역할을 춘추관에 두어 최고 정이품 벼슬까지 주었으니 풍수에 따른 왕릉 등의 택지를 얼마나 중히 여겼는지 알 수가 있다. 조선은 풍수적 비결에 능한 무학대사의 탁견으로 개국공신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 천우신조의 도움 없이 어찌 왕조의 발현이 가능하겠는가. 수도를 한양으로 정한 것도 지수화풍의 조화를 생각한 풍수적 결정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망의 주자들은 한결같이 조상들의 묘가 대운을 부르고 받기에 결함이 없는 터인지를 살핀다. 그러한 터를 찾고자 지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속종과 관련한 재미있는 얘기도 전해진다. 지관 갈처사와의 얘기가. 속종은 평복 차림으로 잠행을 자주 한 임금으로 하루는 역시 평복 차림으로 지금의 과천 아디쯤을 지나갈 때 한 덩어리 총각이 흐르는 시냇가에서 땅을 파고 있었다. 이상히 여겨 임금은 지금 무얼 하는 것이냐 물었다. 총각은 오늘 아침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갈처사라는 지관이 여기도 묘를 쓰라 해서 땅을 파는 중이라고 울면서 답했다. 속종은 고약한 지관이 장난을 친다 생각하고는 갈처사가 어디 사는지 물어보았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48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591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책 출간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퍼즐과정을 즐기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3X3 �도쿠 365 0, 365 10, 365 110

6		4	3	8				1
8					1			
2	5				6			
		2		9				
9								6
				1		9		
			9				6	4
			1					5
3			6	5	2			9

3		1	2					6	4
5									
				3					9
				8	3				2
		6				8			
1			7		6				
9				8					
									8
8	1				9	4			7

6	1	2	9	9	2	8	7	8
9	8	8	2	7	1	9	6	2
7	9	2	8	8	6	9	2	1
2	2	6	7	1	9	8	8	9
9	9	7	8	2	8	2	1	6
8	8	1	2	6	9	2	9	7
8	6	8	9	2	7	1	9	2
2	7	9	1	9	2	6	8	8
1	2	9	6	8	8	7	2	9

2	8	7	6	9	9	2	1	8
8	9	6	2	7	1	8	9	2
9	2	1	2	8	8	9	7	6
9	7	8	9	2	2	6	8	1
1	2	8	9	6	7	9	8	2
2	6	9	8	1	8	2	9	7
6	8	2	1	8	9	7	2	9
8	1	2	7	9	6	8	2	9
7	9	9	8	2	2	1	6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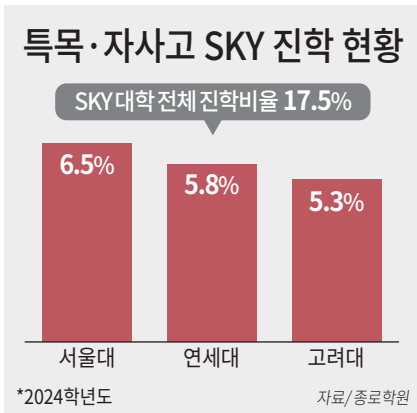
의대 선호, 지방 기피 현상에 특목고 출신 17.5% 'SKY'로

지방 과학기술원 진학 6.4%p 감소 의대 열풍에 이공계 기피현상 반영

지난해 특목·자사고 출신 학생들의 17.5%가 이른바 'SKY'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3.1%p 증가한 수치로, 같은 기간 지방 과학기술원 진학 비중은 6.4%p 낮아지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의대 열풍' 영향으로 이공계 기피 현상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4일 종로학원이 지난 2024학년도 전국 4년제 222개 대학 신입생의 출신 교를 분석한 결과, 과학·국외외국어 등 특수목적과 자율형사립고, 영재학교 등 졸업생 중 대학 진학자는 2만1426명으로, 이 가운데 17.5%인 3748명이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3개 대학에 진학했다. 전년(3635명) 대비 113명(3.1%) 증가했다.

이들이 가장 많이 입학한 대학은 서울대가 1390명으로 6.5%를 차지했다.



이어 ▲고려대 1232명 ▲연세대 1126명 ▲성균관대 1063명 ▲한양대 817명 ▲경희대 786명 ▲한국외대 759명 ▲중앙대 715명 ▲한국과학기술원 611명 ▲이화여대 527명 순이다.

문제는 이처럼 최우수권 학생들의 이공계특성화 대학 진학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중 이공계 학생으로 꼽히는 과학·영재학교 출신의 과학기술원 등 이공계특성화 대학 진학자 수는 2023학년도 1094명에서 2024학년도 1024명으로 전년대비

70명(6.4%p) 감소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41명(2023학년도)에서 23명(2024학년도)으로, 43.9%p 감소했고, ▲울산과학기술원 159명에서 118명으로 25.8%p 감소 ▲포항공대 189명에서 178명, 5.8%p 감소 ▲한국과학기술원 583명에서 564명으로, 3.3%p 줄었다.

2024학년도 과학·영재학교 출신 4년제 대학 진학자 수는 2773명으로 이중 한국과학기술원에 564명(20.3%)이 입학해 가장 큰 비중을 보였지만, ▲서울대 503명(전년 448명) ▲성균관대 196명(전년 87명) ▲포항공대 178명(전년 189명) 등 일반 대학 진학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이처럼 과학·영재학교 출신 학생들의 이공계특성화 대학 진학자 수가 감소하는 이유는 의대 선호 현상과 더불어 지방권 소재 대학 기피 현상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 지역주택조합서 부적정사례 94건 적발

7곳 대상 전문가 합동 실태조사 실태조사 방해 등 17건 고발조치

#. A지역주택조합은 연간 자금운용계획서와 월별 자금입출금명세서 등을 사업연도별로 분기마다 작성하고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월별 자금입출금명세서를 작성 및 공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 B지역주택조합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 정기총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미루거나 열지 않았다.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총회의결을 거쳐 주택조합의 사업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7곳을 대상으로 지난 6~7월 전문가 합동 실태 조사를 벌이고 약 100

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위반 사항은 ▲실태조사 방해·기피 ▲자금운용계획서 등 정보공개 부적정 ▲감

감이 자금 집행·회계자료 작성 등이었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94건 가운데 17건은 고발 조치하고, 4건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제도 기간을 거친 뒤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조합별 세부 지적사항은 각 조합이 운영 중인 누리집을 통해 가입자에게만 공개토록 했다. 세부 지적사항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원활한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각 조합 누리집을 통해 조합 가입자만 확인할 수 있게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조합원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반기에도 전수조사를 진행해 부적정 사항을 계속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

고양시, 혁신 기술로 미래도시 만든다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에 402억 투입 디지털트윈 등 8가지 스마트서비스

고양시는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을 통해 디지털 트윈, 교통 최적화, 수요응답형 버스, 드론밸리, 지능형 행정서비스, 스마트 폴 및 미디어 월, 데이터 허브 등 8개의 혁신적인 스마트 서비스를 도입하며, 미래 도시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작년 5월, 고양시는 국토부의 '거점형 스마트시티'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지난 25일 '2024 제2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이로써 고양시는 오는 10월까지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내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스마트 시티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 진우에이티에스 등 8개 업체와 상호협력하여 시민 맞춤형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총 사업비 402억 원 중 국비 200

억 원, 시비 200억 원, 민간투자 2억 원

을 포함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 트윈은 현실과 동일한 가상 세계를 구현하여 도시 전역의 3차원 도시 공간을 구축하는 프로젝트이다. 고양시는 이를 통해 1기 신도시 재건축, 3기 신도시 계획, 도심항공교통(UAM) 최적 경로 설정, 기반침하 실시간 관측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대중교통 서비스에서는 수요응답형 버스를 운영하여 정해진 노선과 시간표 대신 탑승자의 사전 예약과 스마트폰 호출을 통해 현장 결제를 받아 탄력적으로 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동한 고양시장은 "스마트 기술의 최종 목표는 시민의 삶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에 병설유치원 신설

12학급 규모 2028년 3월 개원 예정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단지 내에 병설유치원 신설이 확정됐다.

서울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서울 둔촌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신설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둔촌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특수 2학급을 포함해 12학급 규모로

오는 2028년 3월 개원할 예정이다. 정원은 184명이다. 시교육청은 올해 공유재산심의 및 관리계획 의결 후, 내년 설계 공모 및 설계 확정을 거쳐 2026년 공사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는 1만2032가구 규모 재건축 단지인 올림픽파크포레온 아파트와 강동송파 1취학 권역(길동, 천호3동, 둔촌1~2동) 등 지역 내에 유아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올림픽파크포레온 재건축정비사업 진행에 따라, 증가하는 학생들을

수용할 교육기관 신설은 꾸준히 요구돼 왔다. 이에 따라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병설유치원 6학급을 포함한 가정 둔촌일초 신설을 추진했으나, 지난 2020년 12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부적정 판단을 받으며 추진되지 못했다.

그러나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유아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유치원 설립계획을 수정·보완해 가며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며 그 결과 지난 7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설립 승인을 받았다.

/이현진 기자

경북도, 경북형 적극행정 체계화 시책 시행 오세훈, '중관촌' 시찰

도민 민원, 행정쟁송 발생 문제 해결

경북도는 이번 달부터 신속한 도민 권리구제를 위해 행정기본법을 기반으로 '경북형 적극행정 체계화' 시책을 시행한다. 이번 시책은 법령 및 조례 규칙상 재량이 있어도 소극적이고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로 도민 민원과 행정쟁송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행정처분 시 관련 공무원이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는지 심도 있게 사전검토하고, 처분일로부터 30

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의무적으로 고지하고, 이의신청 시 공무원이 변호사 자문과 자체 사전컨설팅 감사를 체계적으로 활용하며, 적극 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일선 행정청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 행정기본법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적극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게 해, 도민 불편을 해결함과 동시에 지방행정의 민주성, 적법성, 적정성, 효율성, 신속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경북=나영조 기자 ray6061@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지난달 31일(이하 현지 시각) 베이징시 서북부에 위치한 중국판 실리콘밸리 '중관촌'을 방문해 창업 지원 시설과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한중 스타트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을 모색했다고 4일 밝혔다. 오 시장은 중관촌 내 창업거리(Inno-way)를 찾아 중국 정부의 창업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확인했다. 첨단기술 집결지인 중관촌은 바이두, 레노버, 텐센트, 샤오미 등 중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을 탄생시킨 하이테크 기지이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8월 5일 (월)
음력: 7월 2일

수도권 날씨: 28~34°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25/33, 동두천 26/33, 파주 25/33, 가평 25/34, 서울 28/34, 양평 26/33, 인천 27/32, 수원 27/33, 용인 27/33, 평택 26/34, 백령도 25/32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뉴스비타민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트럼프 "해리스, 불법 이민 책임 있어...법질서 회복할 것" /사진 뉴시스
▲이스라엘, 요르단강 서안 공격...하마스 지휘관 포함 5명 사망

▲미국·영국, 레바논서 자국민 즉시 출국 권고...중동 혼란 심화
▲자산 380조원 중국보험사 '안방보험' 파산...동양생명·ABL생명 매각 전망



▲헤즈볼라, 이스라엘에 로켓 수십 발 발사...이란 보복 공격 임박
▲이집트, 이스라엘에 라파·필라델피 통로 철수 요구 /사진 뉴시스



파리서 라면을
올림픽 사로잡은
K-식품
니



Life

LG전자
캄보디아 청소년
자립 지원
L4



“철도 안전 지키는 ‘검측 솔루션’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것”



새벽을 여는 사람들

투아이스스

박종국 대표

“도전과 신뢰 하나로 한국 철도 안전 기술을 발전시켰죠”

대한민국 철도 안전은 어떻게 보장 받고 있을까. 최근 K-철도 안전 기술이 세계 각국에 뻗어가고 있다. 이 중심에는 투아이스스 박종국 대표이사 있었다. 그는 대한민국 철도 안전 기술을 발전시키기까지 ‘도전과 신뢰’가 바탕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의 하루는 수 많은 미팅과 회의로 인해 오전 6시부터 시작된다. 투아이스스는 철도 시설물 결합 검사 분야 전문 기업으로 검측 자동화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를 최초 개발 및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 해당 기술은 철도 시설물 관련 결합을 사전에 확인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해준다.

박 대표는 “그간 국내 철도 시설물 검측 시스템은 해외 솔루션에 의지해오면서, 한번 고장나면 수리기간도 몇 개월이 소요되는 등 제약이 많아 안전 유지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화된 철도 시설물 검사 시스템을 개발해 국내에 도입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실제 철도 시설물은 노후 시큰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점검이 필수다. 하지만 그간 철도 시설물 결합 검사의 경우 국내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 해외 솔루션을 이용하거나 유지 보수원이 현장 검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투아이스스는 한국철도공사 등 유관 기관과 오랜 연구개발과 끝에 인공지능(AI) 등을 적용한 철도 시설물 자동 검측 기술을 개발했다. 장애 발생 전유지보수가 가능한 국산화 기술을 탄생시킨 것.



◆IT연구원, 국내 철도 안전 책임자다
이처럼 국내 철도 안전기술이 발전하기까지는 박 대표의 ‘도전정신’이 있었다. 그는 지인이 국내 철도 안전기술 관련 사업을 추천하자 이를 곧바로 실행으로 옮겼다고 한다.

박 대표는 LS산전 연구소에서 10년 이상 재직하던 IT 관련 연구원이었다. 이후 IT 사업을 구상해오던 가운데 철도 안전기술 관련 사업에 뛰어들게 된 것이라고. 박 대표는 “지인이었던 철도 분야 박사님이 국내 철도 안전 기술이 아직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주시면서 해당 사업을 구상해 보는 것을 추천해주셨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지인의 말 한마디에 즉시 국내 철도 안전 기술을 탐방했는데, 실제 오래된 철도 역사에 비해 낙후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국내 철도 시설물 검측 기술은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물론, 모두 수동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깜짝 놀랐다”며 “특히 특정 검측 차량에 시스템을 탑재하고 점검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수시 점검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에 관련 사업을 시작해 국내 철도 안전기술을 발전시켜 보겠다는 의지가 확고해졌다”며 “이후 투아이스스가 개발한 AI 기반 솔루션은 운행 중인 차량에도 탑재가 가능해 철도 시설물 결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 결과 투아이스스는 국내는 물론 해외기업과 견주는 철도 시설물 자동 검사 기술을 보유한 업체로 올라섰다.

그는 이처럼 회사가 성장하기까지는 신뢰가 주효했다고 강조했다.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실력있는 인재를 발굴하는 것은 물론, 그들을 믿어주는 신뢰가 필수라는 것.

실제 투아이스스는 지난 6년간 연구 인력을 배 이상 늘려왔다. 지난 2018년 기준 14명에 불과했던 연구인력은 2023년 35명으로 2배 이상 증원됐다. 총 직원 수도 같은 기간 22명에서 54명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처럼 투아이스스가 철도 안전 기술 개발에 주력한 결과, 회사는 대한민국 대중교통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투아이스스의 기술은 한국철도공사 소속 열차에 대부분 탑재돼 있는데, 현재 운용 중인 고속검측차(KTX), ITX-새마을 전용 검측차 등은 물론 서울교통공사 도시철도 ▲2호선 ▲5호선 ▲9호선 등에도 일부 장치가 탑재돼 있다.



박종국 투아이스스 대표가 사무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철도 시설물 검측 시스템 연구·개발 해외에 의존하던 사업 국산화 이뤄

검측장치에 20여종 AI 모델 적용 운행 중인 차량에도 탑재 가능해 KTX, 서울지하철 등에도 장치 탑재

2019년, 대만철도관리국에 수출 해외신흥시장 진출 지속 확대할 것 K-철도 안전기술, 해외 진출 목표

박 대표는 회사가 개발한 AI 기반 솔루션이 수도권을 넘어 부산교통공사 내 신차에도 적용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K-철도안전기술, 해외시장으로 경쟁력 확장

박 대표는 투아이스스를 글로벌 최고 철도기술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다. 회사가 개발한 K-철도 안전기술을 국내에 안주하지 않고 해외시장으로도 확대하겠다는 것.

박 대표는 “지난 2019년 대만 현지 간선철도 운영기관인 대만철도관리국(TRA)과 전자선로전용 검측차량 2대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금액은 140억 원 규모”라며 “지난 11월 투아이스스와 대만철도관리국이 공동으로 대만에서 검측차량에 대한 현장 시운전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국가 철도 안전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해외신흥시장 진출까지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현재 해외시장에 비하면 국내시장은 훨씬 작은 규모라고 생각한다”며 “지난 2015년 기준으로 890억 유로 수준이었으며 매년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향후 투아이스스는 국가 철도 안전산업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대만은 물론 인도,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시장 진출에 이어 유럽시장 진출까지 나아가는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더욱 기술 연구·개발에 매진할 것”이라며 “현재 투아이스스의 검측 장치들에는 20여종의 AI 모델이 적용됐고 앞으로도 검사에 적합한 새로운 모델을 추가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투아이스스가 개발한 열차 차량검측 시스템. /투아이스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비스티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사격 여자 25M서 양지인 금메달... 한국 사격 역사상 10번째 금메달 /사진 뉴시스
▲프로야구 KIA, 한화 꺾고 4연패 탈출...2위 LG와 승점 차 5.5게임

▲샌디에이고 김하성, 4경기 13타수 무안타...시즌 타율 0.224 부진 계속
▲이천수 “축구협회 소속 시절 정부에 빌어서 돈 받아”



▲김민재, 토트넘전 마친 뒤 인터뷰 거절...원헌, “일정상 이동해야 했다”
▲여자배구 도로공사, 새 외인 선수 니콜로바 팀 합류 /사진 뉴시스